

|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위한 가이드 북 |

생활신앙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 새가정

|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위한 가이드 북 |

생활신앙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목차

- 인사말 / 2
- 발간사 / 3
- 통합적인 가정사역이란? / 4
- 예배(Worship) / 9
- 나눔과 섬김(Diakonia) / 16
- 교육과 양육(Didache) / 23
- 영성(Spirituality) / 32
- 교제와 사귄(Koinonia) / 41

| 참고자료 |

- 2019년~2023년 세미나, 강좌 발제 원고 모음 / 51
- 영상 QR 코드 모음 / 133

인사말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1955년 창립되어 지난 70년 동안 오직 가정사역만을 위해 걸어왔던 지난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광야 길과 같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끈질긴 기도와 땀으로 일군 헌신 덕분에 오늘의 가정생활협회가 존재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생활협회는 2019년 가정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제안하였습니다. 통합적인 가정사역은 다섯 가지 영역(예배, 교육과 양육, 나눔과 섬김, 교제와 사귄, 영성) 안에서 생활신앙운동을 통해 가정이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가정생활협회 창립 70년을 맞이한 올해, 지난 5년(2019년~2023년) 동안 통합적인 가정사역에 대해 연구해 왔던 중간 결과물을 가이드 북으로 선보입니다. 아직 완성된 결과물은 아니지만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위한 가이드 북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전임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진, 실행위원들, 새가정 운영위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가이드 북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이드 북을 기획하고 출간까지 도맡아준 사무국 이영미 총무님과 실무자들의 애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바라기는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위한 가이드 북이 가정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교회와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된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10월 24일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회장 허 정 강 목사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초대 위원장이셨던 허길래 선교사님은 평생을 가정과 어린이에 관심을 두고 한국 기독교 안에서 가정생활신앙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1955년 창립 후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생활신앙의 가치와 필요성은 믿음의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 할 가정운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5년 동안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연구해오며 가장 핵심 키워드로 꼽은 것 역시 “생활신앙”입니다.

회원교단으로부터 가정사역을 위임받아 사역해 온 본회는 7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가정사역 연구를 위해 여러 세미나와 책들을 출간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가정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제안하면서 다섯 가지의 영역에서 생활신앙운동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연구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가이드 북은 지난 5년(2019년~2023년) 동안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연구해 온 결과물로서 예배, 교육과 양육, 나눔과 섬김, 교제와 사귄, 영성의 주제들에 대한 설명과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 볼 내용들 그리고, 선포되었던 가정평화캠페인 주제선언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진행했던 발제 원고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연구를 거듭해 오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점은 본회가 연구하고 있는 가정사역의 내용들을 어떻게 교회와 가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사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정사역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준비하는 가정사역 아카데미는 교역자, 평신도들이 가정사역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사역의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신앙을 통한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연구는 계속될 것이기에 오늘의 가이드 북은 완성본이 아닌 중간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생활신앙이 우리 몸에 근육이 되어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본회의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연구가 깊이 있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총무 이영미 목사

통합적인 가정사역이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골로새서 3장 12~15절, 새번역)

가정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정사역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떠올리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와 같이 잘 준비된 무엇인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가정사역은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에 정답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가정사역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는 있지만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가정사역의 내용을 제공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도 가정과 관련된 사역이 있었겠지만 가정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초기 가정사역은 가족상담과 치유사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원인을 가족간의 갈등, 불화로 인식하여 가족들의 집단 심리상담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국내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목회)상담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늘어났고, 기독교 가족 상담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가정사역학회, 목회상담협회 등의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가족들의 갈등이나 불화를 일시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있지만 보다 근

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생겨났고, 그 이후 가정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부모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성향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리즈로 결혼예비학교, 예비부모학교 등 가정사역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1990~2000년대 초반까지는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가정사역의 주를 이루었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포털에서 가정사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대부분 검색되는 내용이 가족상담이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정사역의 새로운 영역으로 실버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초기 가정사역이 가정에 속한 전 세대에 대한 사역으로 시작되었다면 앞으로는 가정사역도 세대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회도 세대별 가정사역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해놓고 이제부터 가정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교육을 전인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워내는 교육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따뜻한 전인격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 전인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를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무한 경쟁사회에서 무조건 살아남기 위한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게 된 머리로만 아는 구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구원이 아닌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감각이 느끼고 깨닫는 구원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머리와 마음이 분리되어서는 느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

에서 배웠을 때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지만 어느 날 머리로 알고 있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음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비로소 머리와 마음이 일치된 신앙의 신비,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로소 경험하게 된 신앙의 신비와 전인적인 구원의 결과물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된 생활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숙제는 어떻게 신앙의 신비, 곧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모이기에 힘쓴다는 점입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놀랄 만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성경통독 모임, 어머니 기도회, 전도 특공대 등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도 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도 교회에서, 교제와 사귄도 교회에서, 교육과 양육도 교회에서 도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했을 때 한국교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한국 교회 안에 회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그 회복이 단순히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교인들의 숫자 회복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모이기에 힘쓴 만큼 양적인 성장과 부흥은 분명한 결과물로 드러났지만, 과연 신앙의 질적인 측면도 좋은 결과를 내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신앙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맡은 직분에 따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를 떠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본회가 가정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모델을 제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모델은 다섯 가지의 영역인 예배(Worship), 교육과 양육(Didache), 나눔과 섬김(Diakonia), 교제와 사귄(Koinonia), 영성(Spirituality)의 영역 안에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신앙의 신비와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함으로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작은 씨앗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Worship)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정, 교육과 양육(Didache)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꾸준히 하는 믿음의 가정, 나눔과 섬김(Diakonia)을 통해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 교제와 사귄(Koinonia)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영적 성숙(Spirituality)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제안하였습니다.

본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다섯 가지 영역인 예배, 교육과 양육, 나눔과 섬김, 교제와 사귄, 영성의 영역 안에서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과연 통합적인 가정사역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2023년 가정평화 캠페인 주제	
2019년	예배(Worship)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요 4:23~24)”
2020년	나눔과 섬김(Diakonia)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 우는 가정과 함께”(롬 12:15)
2021년	교육과 양육(Didache)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신 6:4~7)
2022년	영성(Spirituality)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갈 5:22~23)
2023년	교제와 사귄(Koinonia)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이 있는 믿음의 가정”(요일 1:3)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역이기에 교회는 주님의 복음에 기초한 신앙훈련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은 그 훈련의 내용을 실천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예배(Worship), 교육과 양육(Didache), 나눔과 섬김(Diakonia), 교제와 사귄(Koinonia), 영성(Spirituality)의 모든 영역에서 생활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예배 (Worship)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

가정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다면 혹시 가정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주일 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등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나 바쁜데 말입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일보다 주일 성수, 즉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목숨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 주일 성수에 전력을 다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순전한(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행위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생활신앙운동입니다.

가정예배는 생활신앙운동의 첫 출발점입니다. 가정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잘 준비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예배의 자리가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언제나 푸른 초장과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경험하고),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생활신앙운동의 핵심입니다. 그 경험과 기억, 고백이 우리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19년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위한 첫 번째 영역으로 예배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정하고 가정에서부터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예배생활신앙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순전한 예배자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생활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입니다.

가정예배의 회복은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일이고, 가족들과 또는 혼자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 가정예배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는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순서는 어떻게 하고, 언제 드려야 할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욕이 앞서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드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 찬양과 기도, 말씀묵상의 순서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을 것이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가정 안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릴 때 함께 드렸던 기도와 묵상했던 성경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경험과 기억으로 남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행위에 집중하기 보다는 생활이 곧 예배임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정형화된 예배의 형식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짧은 기도를 통해, 진심이 담긴 대화를 통해 그리고 짧은 말씀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의 한 부분임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아빠가 자녀를 위해 해준 몇 마디의 기도가 아이의 기억에 남아 기도하는 생활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고, 엄마가 들려 준 성경 이야기가 경쟁사회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기대와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 바로 시작해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생활신앙으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복음 4장 23~24절, 새번역)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와 새가정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파송되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호흡하는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적인 통로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참된 구도자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샌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순전한 예배자로 설 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온 삶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평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주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감동과 감격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 우리의 다짐 |

하나. 예배를 구경하는 참관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둘. 가정예배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셋.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넷. 예배의 감동과 감격, 기쁨과 감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섯.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가정평화캠페인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가정평화캠페인 선포식

● 우리 함께 해봐요 ●

1. 가정예배 서약서

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가족들과 언제, 어디서 가정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 정합니다. 가정예배는 형식보다는 가정의 형편에 맞춰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여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예컨대 묵도, 찬송, 대표기도, 설교, 주기도문과 같은 형식적인 순서를 정하기 보다는 가족들의 연령이나 원하는 바를 담아 보다 자유롭게 준비하여 드립니다. 형식보다는 가족들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 서약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활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2.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생활화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아빠 ○○○(인)
엄마 ○○○(인)
자녀 ○○○(인)

2. 카카오톡 릴레이 기도

가족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예배시간을 맞추는 일입니다. 저마다의 일상생활이 있기에 강제로 시간을 정한 후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경우, 카카오톡 대화방에 짧은 성경구절과 함께 기도를 적어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다른 자녀에게 은혜로운 성경구절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적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갈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가정예배 양식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예배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형식보다는 가정의 형편에 맞춰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식사를 위해 모인 가족들을 위해 부모님이 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경을 한 장씩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처음 가정예배를 시도하다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막막하시겠죠? 가정예배를 처음 시도하시거나 이미 드리는 가정예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가정에게 좋은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소개해 드리는 책에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예배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이미 출판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신형섭 저, 『**가정 예배 건축학**』, 2017. 9.27,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pp. 109~239. II부. 가정예배 세우기 실천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Diakonia)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 우는 가정과 함께 -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 가정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together)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곧 하나님나라의 표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깨져버렸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함께 지워져버렸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깨뜨린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지워져 버려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디아코니아($\delta\iota\alpha\kappa\omicron\nu\nu\iota\alpha$)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래 '생활을 잘하도록 돕는다', '식탁에서 음식을 시중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디아코니아 사역을 나눔과 섬김, 봉사의 사역이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디아코니아 사역은 나눔과 섬김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니아

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시해를 베푸는 차원의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보여주기식의 선한 행위는 누구나 모방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지만 선한 마음과 공감의 마음은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하며 그 공감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비우고 내려놓게 함으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는 가정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져가고,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찢어지고 상처받아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는 세상도 아니기에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평가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늘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다 말하며 불행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보다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디아코니아 사역의 핵심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나눔과 섬김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가진 것 없고, 병들고 힘이 없어 늘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던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삶은 연약한 이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 절망감,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감의 마음이 사랑을 통한 나눔과 섬김의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20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 우는 가정과 함께”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우는 가정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념이 다른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희귀한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길에서 노숙을 한다는 이유로, 미혼모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디아코니아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댁 바로 맞은 편 반지하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자녀들과 동네를 산책하다가 아이들에게 앞집 할머니 이야기를 전하며 빈 박스를 주워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 제안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종종 길을 걷다가 빈 박스가 보이면 주워다가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이들은 목사님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박스를 주워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렸는데, 며칠 동안 박스가 집 앞에 쌓여있거나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날에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주 작은 나눔과 섬김이었지만 아이들이 누군가를 걱정하고 공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디아코니아 사역은 거창한 나눔과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여 행동하는 작은 몸짓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섬김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을까요?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못 본 체하며 지나쳤을 뿐이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외면한 것이겠지요.

가정에서의 디아코니아 사역,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갈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 우는 가정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로마서 12장 15~18절, 새번역)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20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 우는 가정과 함께”로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들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높음도 낮음도 없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도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대는 깨져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빈부의 격차나 지위의 격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깨뜨리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정을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주변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장애인가정), 피부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다문화가정), 이념이 다른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북한이탈주민 가정), 희귀한 질병을 가졌

다는 이유로(희귀난치성질환 가정),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소년, 소녀가정), 그룹홈이나 쉼터 등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노숙인, 미혼모, 가출 청소년가정) 많은 가정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소명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며 동반자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한국교회에 제안합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공감능력을 깨워 사회에서 내몰리고 차별받고 있는 우리는 가정들과 함께 울며,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상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공감과 동행,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제안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주변에서 울고 있는 가정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2020년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가정평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 우리는 가정과 함께”라는 주제에 마음을 모아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외면당하는 우리는 가정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덜어 그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 우리의 다짐 |

하나. 우는 가정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눔과 섬김의 실천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셋. 교회와 가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넷.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모든 가정을 대하겠습니다.

다섯.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매결연식

● 우리 함께 해봐요 ●

1. 가정 안에서부터 나눔(나눔과 섬김) 운동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노동은 특별한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음식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은 아내와 엄마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가사 노동부터 나눔과 섬김의 마음으로 가정 구성원들이 나누어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 섬김의 일을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정한 후 실천해 봅니다.

2. 1교회 1나섬, 1가정 1나섬 운동

본회는 생활신앙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1교회 1나섬(나눔과 섬김), 1가정 1나섬 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두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장애인 재활원, 양로원, 보육원, 쉼터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방문과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가족(자녀, 손주) 이름으로 후원하기

자녀나 손주가 태어남을 축하하며 자녀, 손주의 이름으로 후원함으로 성장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의 실천이 또 다른 나눔을 낳게 되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래 기관들을 참고하십시오.

- 1)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https://www.childfund.or.kr/main.do>
- 2) 월드비전 <https://www.worldvision.or.kr/>
- 3) 굿네이버스 <https://www.goodneighbors.kr/>
- 4) 세이브더 칠드런 <https://www.sc.or.kr/>
- 5) 유니세프 <https://www.unicef.or.kr/>
- 6) 밀알복지재단 <https://www.miral.org/main/main.asp>

교육과 양육(Didache)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신앙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信仰)이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믿을 신(信)에 우리를 양(仰)자를 씁니다. 쉽게 풀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믿고 의지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진정한 신뢰가 느껴질까요? 이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의 경험 안에서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격적이게도 많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로 학교 공부나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부모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님 모습이 너무나 다름에서 오는 혼란이 아이들에게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신앙생

활이 아닌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정사역이 필요한 이유이고, 생활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과 기억이 우리를 비로소 신앙의 길로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신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처음 교회에 등록한 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찬양과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조상들이 전수해 준 신앙의 유산을 모방하며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분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기억이 우리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에서 생활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모방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과연 아이들이 생활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다음세대가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그 부르짖음은 허무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21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신앙의 가훈을 정하고 그 가훈의 가치를 따라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였습니다.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듯이 믿음의 가정에는 신앙의 가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신앙의 가훈을 따라 생활신앙인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리스

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그것이 쉬운 일이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부터 부끄럽지 않은 생활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본인 스스로 생활신앙인으로 잘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꼴대로 인식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도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과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앞으로도 그 어떤 성장이나 발전이 있을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기니까요.

신양훈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훈련의 성패는 반복적인 연습에 있습니다. 오래 전 태릉선수촌 체육관 벽에 “땀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신앙의 가훈을 정하고 그 가훈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상을 실현시켜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쌓여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들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세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가훈을 정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은 전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신명기 6장 4~7절, 새번역)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가장 작은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사역의 핵심은 가정이라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평생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과 기억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21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신앙의 가훈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훈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전하여 준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는 일 만큼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신앙의 목표를 결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전수받는 것 뿐 아니라 전수해 주어야 할 신앙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신앙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것인지 신앙의 가훈을 만들어 봅시다. 단순히 구호로 외쳐지는 가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봅시다. 그 가훈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제안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자는 가정평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 신앙의 가훈을 정하고 그 가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걸어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사역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우리의 다짐 |

하나, 가정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 신앙의 가훈을 정하고 그 가훈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셋, 신앙의 유산(遺産)을 잘 전수받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넷, 예수님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복(福)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신앙유산 서약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

첫째, 가정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신앙의 가훈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셋째,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복(福)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교 회: 신사동교회 직 분: 권사 이 름: 여정숙



신앙유산 서약서

● 우리 함께 해봐요 ●

1. 신앙 가훈 정하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신앙의 가훈을 정해봅니다. 성구를 인용한 가훈도 좋고, 신앙의 가치를 담은 가훈도 좋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직장에는 사훈이 있듯이 우리 가정에도 신앙의 가훈을 정해 생활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이 어떻게 신앙의 가훈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신명기 6:6~7, 새번역)

○○○ 가족의 신앙 가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마태복음 5:16)

먼저 주의 뜻을 묻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이사야의 고백처럼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 신앙유산 서약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중한 물건을 가보(家寶)라고 부릅니다. 가보는 가격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담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보를

잘 전수하고 물려받는 것은 오랜 시간 대대로 지켜온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아니,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겠다고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유산은 부모가 전수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잘 전수하고 자녀는 그 유산을 따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더 나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위에 우리 가정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신앙의 유산을 더하여 보십시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만들어가기로 결단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신앙유산 서약서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신앙가훈과 서약서를 액자에 담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가족사진

신앙유산 서약서

- 첫째, 가정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신앙의 가훈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셋째,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복(福)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가족이름을 적습니다.
○○○ (인)
○○○ (인)
○○○ (인) ○○○ (인)

2021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가정평화캠페인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최선에 권사 가정 신앙가훈

“信, 望, 愛”

가정평화캠페인 주제성구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신명기 6:4-7, 새번역)

가정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신앙유산 서약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

첫째, 가정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신앙의 가훈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셋째,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복(福)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교 회: 신일교회 직 분: 권사 이 름: 최선에 (인)

56 새가정 11월호

신앙가훈과 신앙유산 서약서

3. 신앙훈련(부모 교육, 자녀 양육)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만들어가려면 가정 안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훈련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신앙의 삶이 좋은 습관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강자경 김진아 ;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서울: 만우와 장공, 2016)

본회는 부모의 언어교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대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가정사역 대담회(2021. 7. 2) 부모의 언어교육



가정사역 대담회 1부



가정사역 대담회 2부

영성(Spirituality)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사전에는 divine nature(신의 본성)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았고, 또 자주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정작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딱히 뭐라 할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그만큼 영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믿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때는 1980년대 말입니다. 약 40여 년 전 한국교회 안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영성훈련, 영성수련 등의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일부 보수교단에서는 영성을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영성은 명상, 묵상, 침묵, 관상기도 등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만남을 가짐으로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만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만남만을 강조하다 보면 영성의 또 다른 면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만남은 전적으로 개인의 영성에만 한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으로 한정하다 보면 저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사건들을 강조하게 되고, 자칫 개인적인 경험을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영적 경험으로 이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영성의 다른 면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영성은 개인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적인 만남 뒤에 따라와야 할 것이 바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많은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의 변화는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예컨대 사람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실천적 영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성령의 은총 안에서 행동할 때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적 영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모습,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해 보여주셨던 영성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천적 영성의 삶을 직접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실천적 영성의 삶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약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감의 영성이었고, 비움과 내려놓음의 영성이었으며, 사랑을 기반으로 낮아져 나누고 섬기는 영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22~23절 말씀을 통해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 부릅니다. 이 열매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실천적 영성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던 삶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적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적인 영성의 삶이 기반이 되어야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영성이 없는 실천적 영성은 소리만 큰 빈 깡통과 같고, 실천적 영성이 없는 내적인 영성은 말로만 되뇌이는 형식적인 기도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내적인 영성의 삶과 실천적 영성의 삶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참된 영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참된 영성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내적인 영성의 삶과 실천적 영성의 삶의 조화를 통해 참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행실이 일치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회는 2022년 가정평화캠페인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하고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영성일기를 써보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매일 영성일기를 쓰며 하나님과의 내적인 만남과 실천적 영성의 삶을 통해 영성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성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내적인 영성의 삶과 실천적인 영성의 삶을 조화 있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성일기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장 22-23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모습,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해 보여주셨던 영성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성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약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감의 영성이고, 비움과 내려놓음의 영성이며, 사랑을 기반으로 낮아져 나누고 섬기는 영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영성의 삶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가치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일치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22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가정과 교회,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섬기며 살아갑시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 교회,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가정평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우리 모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 전심을 다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 우리의 다짐 |

하나, 그리스도의 영성을 기억하며 영성일기를 쓰겠습니다.

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공감, 비움, 내려놓음,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셋,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 우리 함께 해봐요 ●

1. 영성일기 쓰기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실천적 영성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아홉 가지의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영성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맺어야 할 열매들 》

열 매	내 용	나의 삶 속에서
사 랑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나요?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최선을 다해 사랑했나요?	
희 락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기쁨으로 생활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았나요?	
화 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았나요?	
오래참음	자신의 힘겨움을 생각 없이 이야기 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오래참으며 살았나요?	
자 비	따뜻한 마음과 상냥함,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며 거절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요?	
양 선	덕이 있고 도덕적이며 양보할 줄 알고 항상 선을 생각하며 살았나요?	

총 성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살았나요?	
온 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이웃을 향한 이해심이 많고 다툼이 없으며 사람들을 평안하게 대하며 살았나요?	
절 제	쾌락과 욕심을 비우고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제어하며 살았나요?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영성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영성일기 〕

_____ 월 _____ 일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1.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특별한 감정(기쁨, 슬픔, 분노, 미움, 서러움 등)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2. 오늘 하루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생활하셨나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느끼며 생활하셨나요?

3.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활하셨나요?

4.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한 줄 기도

2. 집 안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 만들기

가정을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집 안 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작은 방 하나를, 또는 거실 한 곳을 기도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혹은 홀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지금 바로 만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제와 사귄(Koinonia)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이 있는 믿음의 가정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사회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삶은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세상도 아닌 모두가 어울려져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잘 맺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곧 하나님나라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모두 깨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의 단절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단절 이후 인간의 삶은 멈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추악해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무시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자연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훼손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로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코이노니아는 무엇일까요? 헬라어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는 교제, 친목, 친교, 사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혀 생각해보면 공동체, 함께 함, 규합, 협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코이노니아를 교제 또는 사귄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친교를 즐기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책임져 준다는 말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일,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을 의미합니다. 친교나 친목보다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일까요? ‘고독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외롭게 살다가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고독하게 혼자 죽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최근 고독사의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무한 경쟁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으로도 눈을 돌려보십시오. 부부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처가 되고 실타래가 꼬이듯 관계가 더 꼬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사역에 코이노니아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회는 관계가 깨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애찬밥상과 회복적 서클 대화 모임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애찬밥상을 통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눔으로 교제와 사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클대화를 통해 상처와 갈등을 딛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23년 제68회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사귀를 통해 서로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주제입니다. 세상이 맘몬화 되어가고, 황폐화되어 갈수록 소외와 차별, 미움과 증오, 갈등과 다툼, 절망과 좌절의 삶을 뛰어넘어 코이노니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비우고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와 사귀는 인간적인 친교, 친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귀를 통해 언제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클대화

자, 이제 용기를 내어 코이노니아의 삶에 한 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자신만을, 우리 가정만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혼자 걷는 걸음은 더디고 힘들

지만 주변의 가족들, 동역자들과 마음을 모아 연대한다면 진정한 교제와 사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1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이 있는 믿음의 가정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귄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귄입니다.(요한일서 1장 3절, 새번역)

인간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서로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질서를 따라 서로 의지하고 연대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생태계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관계의 단절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가치입니다. 이해와 배려,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소외와 차별, 미움과 증오, 갈등과 다툼, 절망과 좌절을 뛰어 넘어 모든 피조물이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귄(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됨을 고백하듯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귄을 통해 누린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생태계와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은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연대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2023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 통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누고 섬기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를 담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 소외와 차별, 갈등과 분열, 미움과 슬픔이 없는 코이노니아 세상,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존중하며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23년 가정평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삶을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 전심을 다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 우리의 다짐 |

하나, 디아코니아 사역인 1가정 1나눔(나눔과 섬김)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둘, 가족과의 회복적 서클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셋, 가족과 함께 나누는 애찬밥상을 통해 우리 가정의 하나 됨을 고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 우리 함께 해봐요 ●

1. 애찬밥상

식구(食口)라는 말은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말합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이 함께 밥을 나누며 교제와 사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식구들과 함께 애찬밥상을 나누면서 교제와 사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 1) 애찬밥상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 2) 애찬밥상은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함께 행복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 3) 애찬밥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 4) 애찬밥상 순서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찬나눔과 함께 가족의 사랑도 함께 나누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 5) 애찬밥상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해주십시오.
- 6) 애찬밥상을 마칠 때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애찬밥상

(함께 읽기)

밥은 생명입니다. 함께 나누는 애찬밥상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도 밥을 먹고 생명을 얻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1. 감사함으로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2. 밥을 먹기 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 기도를 드립니다.
3. 식사를 하며 내게 맛있는 음식 또는 음식에 관한 기억들을 함께 나눕니다.
4.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듯이 애찬밥상을 통해 서로 칭찬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5. 식사 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을 부르며 함께 애찬밥상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 번 반복해서)

※ QR 코드를 찍으시면 음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6. 애찬밥상 노트를 준비하여 느낀 점을 한 줄씩 적도록 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새가정

애찬밥상

2. 서클대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의 원인은 진정한 대화와 소통의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다 보면 대화가 엇나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소통이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오해가 생기게 되고,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귀를 위해 새로운 소통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서클대화는 참가자들이 원을 만들어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존중받고 방해받지 않으며 말할 기회를 가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서클대화는 진정한 소통으로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서클대화의 기본규칙은

1) 토킹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킹스틱은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는 도구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서클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물론 침묵도 허용됩니다.) 토킹스틱을 무엇으로 할지는 진행자뿐 아니라 구성원 누구나 정할 수 있고 개인이나 가족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물건이면 가능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중단시킬 수 없고 온전히 말하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경청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 선물처럼 오는 순간입니다. 절대 특정한 결과를 원하거나 즉각적인 수정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화를 끊거나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3) 서클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서클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서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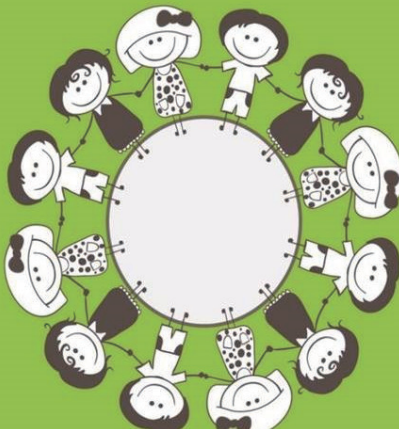
편안한 마음으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화가 중단되거나 이탈하는 구성원 없이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쳐야 합니다.

4)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원하는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불쑥 꺼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려 깊지 않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서클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기꺼이 초대 방식대로 서로가 원할 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회복적정의 포스터 시리즈 2

서클의 기본 규칙



- ❖ 토크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 할 수 있다.
-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 ❖ 서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KOPI 한국평화교육훈련원 www.kopi.or.kr KARJ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서클대화 기본규칙

서클대화를 풍성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준비하셔도 되고, 일상적인 나눔과 관련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 예시 질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❶ 나에게 주고 싶은 상장과 가족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장은?
- ❷ 내가 한 엉뚱한 짓과 내가 한 다정한 일은?
- ❸ 우리 가족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대표 음식 메뉴는?
- ❹ 내가 뽑은 우리 가족 올 해의 사진과 이유는?
- ❺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❻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은?
- ❼ 가족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것과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❽ 올해 도전하거나 시도해 보고 싶은 일과 그 일을 위해 가족에게 도움 받고 싶은 것은?

서클대화 안내 영상: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서클대화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클대화 키트가 없을 경우 가정에 있는 물건들로 대체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서클대화 키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2019년 ~ 2024년 가정사역을 위한 세미나, 강좌 발제 원고 모음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가정사역의 연구를 위해 매년 정기 세미나와 가정사역 강좌를 진행해왔습니다. 정기 세미나는 가정사역 강좌 때 발제했던 원고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모아두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없는 영상자료는 QR 코드를 만들어 스캔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별도로 모아두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축적된 이 귀한 자료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정사역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아 가정사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통합적인 사역을 위한 간담회(2019. 11. 14)

-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기조발제: 허정강 목사(가정협 서기)
- 통합발제: 신형섭 교수(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

“가정사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허정강 목사(가정협 서기, 서울성남교회)

1.

제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서기를 두 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협회에 합류하여 짧은 시간 함께 사역하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세운 기관으로서 가정생활협회가 그 고유한 사역의 영역, 곧 가정사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당하며, 그 사역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사역에 대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로서 고민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우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변화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하는 목회적 고민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서 출발해서 오늘 논의를 여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주목한 가정사역은 주로 치유와 상담 위주의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해방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여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기독교 가정사역은 그 이상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나라 공동체로 가정을 세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가정사역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통해 그 속에서 통전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고 변화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그것을 위해 우리는 통합적인 가정사역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나라’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지요. 하나님나라가 아주 가까운 장래에 오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나라가 벌써 자신의 사역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하나님나라는 ‘출범과 완성’의 구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세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나라는 미래에 옵니다. 그때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하여, 미래의 완성을 향하여 벌써 출범한 것입니다.”(복음이란 무엇인가, 김세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출범한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4.

그런데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기적 생명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고, 그런 가정은 곧 교회여야 합니다.

실제 초기기독교 시대의 교회는 모두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롬16:3-6)가 있었습니다. 아리스도볼로의 권속(롬 16:10), 나깃수의 가족(롬16:11)이 있었습니다.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골4:15)가 있었습니다. 압비아와 아킵보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몬1:2)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공인되기 전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는 교회의 모든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육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대의 체제를 넘어선 하나님나라 백성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교제했고, 종과 노예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타자를 향한 섬김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나라 공동체인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5.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나라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나라에로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분명히 알고 누리게 하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양육하는 일’(하나님나라를 목회하라, 김선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하나님나라 백성을 세우는 교육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나라 사역에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나라 목회에서 가정이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현재는 가정이 교육을 거의 포기한 상태’(하나님나라를 목회하라, 김선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정사역의 과제는 가정을 하나님나라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고, 하나님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 감당해야 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가정은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가장 좋은 장(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정은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사역은 ‘가정이 곧 하나님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되도록’하는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섬김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교회는 그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통해 이미 출범한 하나님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세상에 파송하는 일은 교회와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통합적인 가정사역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협회는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교회 현장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만의 고유한 사역의 장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역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는 간담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합적 가정사역의 요청과 모형연구”

: 세대 간 신앙전수의 관점에서

신형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1. 들어가는 말

최근 어떻게 하면 다음세대에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목회적인 대안을 내어놓는 보고서와 자료들에는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 미국 남침례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가르치는 티모시 폴 존스 교수는 2007년도에 기독교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약 79퍼센트의 기독교부모들이 가정에서는 아예 대화가 없거나 가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미국 기독교교육 분야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¹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²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청소년 복음화율은 미전도종족의 수준인 3.8%로 보고가 되었으며,³ 지난 10년간 다음세대 교세(예장통합)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⁴은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다. 기독교 분포도만 보아서는 부모세대는 신앙을 잘 지켜왔으나 다음세대는 절벽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0퍼센트가 넘는 예수 믿는 부모세대의 신앙과 가정안에서의 신앙전수가 온전히 일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다음세대가 미전도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을 치는 현실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1 Timothy Paul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Indianapoli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11), 28.

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3 박봉수,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가?,”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05> [2019.2.27. 접속]

4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2019.2.27. 접속]

필자는 한국교회안에서 가정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통합적 가정사역의 요청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통합적 가정사역의 요청과 가정구비모델

가정에 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관심과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다이애나 가랜드(Diana Garland), 찰스 셀(Charles Sell), M. 루이스롤리(M. Lewies-Rowley) 등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나,⁵ 가정안에서의 신앙전수의 단절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최근 티모시 폴 존스(Timothy Paul Jones), 론 헌터(Ron Hunter), 카라 파월(Kara Powell), 마크 드브리스(Mark Deveries) 등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가정에서의 신앙전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부모세대를 통한 다음세대의 신앙전수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사명과 실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실천신학 모형은 바로 가정구비모델(family equipping model)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정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 가정을 지원하고 세워왔으나, 가정구비모델은 교회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과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고 구비시켜주기 위하여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변혁시켜 가고자 하는 목회실천적 접근이다.⁶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는 자신의 책 『Fashion Me A People』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wigas실 때 두 가지 소명인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목회적 소명과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해가신 교육적 소명을 통해 이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으로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wigas셨다고 설명한다.⁷ 오늘날 이러한 두 가지 소명이 목회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질 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영역별로 구분을 하여 설명하는데 해리스는 예배(leiturgia), 교육(didache), 선포(kerygma), 봉사(diakonia), 교제(koinonia) 5가지의 영역을 제시한다. 필자는 가정구비이론을 통해서 제기되어진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부모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비시켜주는 목회패러다임의 요

5 Timothy Paul Jones and John David Trentham, Practical Family Ministry: A Collection of Ideas for Your Church (Nashville, TN: Randall House, 2015), 7-8;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114.

6 Timothy Paul Jones, 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Three Views (Nashville: B&H Academic, 2009), 69.

7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18, 64-70.

청에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해리스의 두 가지 소명에 근거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역별 삶과 과제에 대한 통합적 재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통합적 가정사역의 모형제시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신적기관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사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통합적 가정사역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목적

통합적 가정사역의 목적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 및 공유하며,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정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비시켜주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내용

통합적 가정사역의 내용은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에서 요청되어지는 가족 구성원 삶의 전영역의 내용을 포함하되, 가정이라는 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생활 공동체이자 혈연공동체에서 요청되어지는 상담의 영역을 고려하여 예배(leiturgia), 교육(didache), 봉사(diakonia), 교제(koinonia), 상담(counselling)의 5가지 영역을 다룬다.

3) 방법

통합적 가정사역의 방법은 역량교육을 지향함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각 영역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구비시켜가도록 하되, 각 가정별 다양한 삶의 배경과 현장과 사명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반영식 양육 및 지원을 실천한다.

4) 현장

통합적 가정사역의 현장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물론이요, 각 가정구성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구현해나가는 학교와 일터, 교회와 세상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이슈와 실천현장을 포함한다.

4. 통합적 가정사역의 영역별 과제

통합적 가정사역이 위와 같은 모형을 통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별 과제가 발견되어진다.

1) 가정사역과 예배(Worship)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가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가정안에 거룩한 의례가 정기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때에도 가정은 작은 교회임이 강조되었고, 17세기 청교도 시대에는 가정예배 모범서를 총회에서 발간하였으며, 18세기와 19세기의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 때에도 가정안에서 거룩한 의례를 실시함에 대한 강조는 지속되었다.⁸ 한국선교 초기의 문헌을 볼 때에도 가정예배는 기독교 가정이 세워지는 자리에 발견되어지는 명시적인 삶의 현상이었다.⁹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는 기독교부모의 회심과 영적부모로서의 정체성, 가정예배의 성경적 기준과 오해풀기, 다양한 가정예배 모형과 실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성경적 대화법, 가정예배에 실천할 성경나눔과 기도인도 등이 요청되어진다.

2) 가정사역과 교육(Didache)

자녀가 경험하는 첫 학교는 가정이며, 처음 선생님은 부모이다. 가정은 가장 대표적인 배움과 성장의 현장이며 특히 아이들의 세계관이 강력하게 형성되어지는 만 4세에서 14세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장은 바로 가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 안에서 마치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위탁하며 부모들의 정체성이 교회에 보내는 자로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목도된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1919년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곽안련(Charles Clark) 교수는 그의 책 『목사지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¹⁰ 더불어 가정사역에서의 교육은 단지 자녀 세대만을 위한 부모의

8 Martin Luther, Tischreden, 지원용역 『탁상담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322-23; James Alexander, Thoughts on Family Worship, 임종원 역,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3), 20; Jonathan Edwards, “Thoughts on the Revival of Religion in the New England,”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ume 1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8), 419-20.

9 고사죽, “가정 예배,” 성경잡지 제 1권 1호 (조선야소교서회, 1918), 1.

10 곽안련, 『목사지법』 (京城: 朝鮮耶甞敎書會, 1919), 269.

과제만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고 성장하는 삶의 여정 역시 요청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사역과 교육의 영역에서는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부모의 정체성 교육, 연령별 자녀신앙양육의 과제와 실천, 인생주기별 이슈와 기독교 변증론, 학부모 코칭, 조부모 교사대학, 기독교 세계관 교육 등의 과제가 발견된다.

3) 가정사역과 교제(Koinonia)

기독교 가정은 혈연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구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¹¹ 이를 위하여 기독교 가정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거룩한 교제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아가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¹² 이를 위하여 가정사역과 교제의 영역에는 부모 성품대화법, 거룩한 대화의 기술, 의사소통이론, 절기에 따른 가정문화 세우기, 거룩한 교제의 공간 만들기 등이 발견된다.

4) 가정사역과 봉사과 섬김(Diakonia)

모든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사랑과 자비로 섬기실 때 기독교 가정들은 이에 마땅히 참여하고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하나님의 ‘봉사’(diakonia)를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족들로 구성된 기독교 가정공동체는 가정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학교와 일터 안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소비공동체가 아닌 봉사와 섬김공동체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사역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 된다. 봉사와 섬김과 연계된 가정사역의 과제에는 가정사명문 만들기, 선교적 가정세우기, 비전과 진로학교, 일과 영성학교, 가족이 함께하는 매일 중보기도운동, 온가족 봉사아웃리치, 온가족 단기선교여행,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등이 있다.

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하나님 나라와 가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56.

12 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London: Lutterworth Press, 1937), 344-45.

5) 가정사역과 상담(Counseling)

가족들은 태어나면서 인생을 다하는 노년기에 이르도록 각자의 인생주기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실천 과제들이 있다.¹³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이러한 소명과 과제들을 합당하게 인식하고 응답할 때 의미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된다. 반면 가정안에서의 관계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 아닌 역기능적인 관계나 사건들은 기독교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부르신 삶의 소명과 과제들을 통하여 합당한 행복과 삶의 누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기에 가족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전인적으로 회복 및 성장하기 위한 상담의 과정은 가정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사역과 상담의 분야에서는 가정상담, 중독상담, 가계도 심화상담, 가족신체 심리치료, 사춘기 부모학교, 결혼 예비학교, 중년 부부학교, 노년 조부모학교, 가족 공감학교, 감정치료 학교 등이 있다.

13 Kathleen A. Cahalan and Bonnie J. Miller-McLemore, *Calling All Years Good: Christian Vocation throughout Life's Seaso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7)

2020년 가정사역 대담회(2020. 10. 29)

- 일시: 2020년 10월 29일(목)
- 장소: 크로스로드 세미나실
- 패널: 백흥영 목사(공명교회 공동목사, 가정사역 전문가)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담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 대담회 1부



가정사역 대담회 2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왜 가정사역이어야 하는가?

Q1. 가장 먼저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적인 삶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도 무너져 버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앞에서 한국교회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제대로 된 대안을 논의하거나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뒤늦게 많은 교단들이 대안으로 디지털 목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A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세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가톨릭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 미사를 중지한다고 발 빠르게 선언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모임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예배 권고를 “종교탄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부득불 온라인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끝내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 19 전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뒤늦게 교회는 온라인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목회로의 전환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디

지텔 목회는 어느새 교회에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교회에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지만, 언제 팬데믹이 끝이 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에 교회는 영상예배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세워가야 합니다.

Q2. 오늘 대담회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왜 가정사역이어야 하는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사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도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연구하기도 하셨고, 직접 가정사역을 운용해보시기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정사역은 무엇인가요? 가정사역의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2. 우선 가정사역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였는데요. 1960년대 초부터 사회가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가정이 붕괴 되는 현상이 늘어가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교회가 가정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사역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쉽게 가정신앙교육 혹은 가정신앙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정사역은 어느 특정한 연령이나 계층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의 전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신앙훈련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가정사역은 단지 상담만을 말하지 않고,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등의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3. 한국교회 안에 아직 가정사역이 널리 알려지거나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의 사역을 지향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모여서 해야 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특별히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그만큼 가정사역이 한국교회에 알려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A3. 사실 가정사역이 널리 알려지거나 정착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교회가 가정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의 사역을 지향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정사역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가정사역에 소홀하게 되었고, 결국 다음 세대에 신앙의 대를 전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사역에 소홀하게 된 원인이 모든 것이 교회에 위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정사역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교회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성품도, 학업도, 친구 관계도 모두 교회에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었던 겁니다. 가정사역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인 너희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문화 가운데 살지만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가르쳤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잃었을 때 사사기 시대가 왔습니다.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사사시대에 돌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자녀 신앙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주었는데, 리더자가 죽었을 뿐 인데 왜 모두 신앙의 길을 이탈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영적 코마, 즉 영적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의 부모는 죽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부재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반드시 시킴으로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Q4. 그렇다면 가정사역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가정사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가정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요?

A4. 가정사역의 중요성은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❶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 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한밤중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모여 아침에 드렸던 것과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차이점이라고는 아침보다 예배 시간이 좀 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사역은 가정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② 우리가 흔히 중세교회 때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반 성도들이 가정에서 신앙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사와 사제들이 종교적 행위를 대신하고 성도들은 그냥 그들의 수행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수동적 위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을 중세교회가 답습했던 것입니다.

③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로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최초의 학교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소교리문답서와 성인 초신자의 세례교육서로 대교리문답서를 같은 해(1529년)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임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④ 무엇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가정사역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예배 지침서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답식 공부를 한다. 또한 온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정은 가족 중에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자를 훈계한다. 가정은 예배에 불참하는 식구가 없도록 감독하며 예배 순서를 인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이처럼 스코틀랜드 교회는 신앙 좋은 사람들만이 가정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 미국 청교도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기독교 예배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지역 교회의 공적 예배와 가족 단위의 가정예배와 골방에서의 개인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공적 예배가 가장 중요하였으나 청교도들에게 있어 가정예배도 극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가족의 가장을 목사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으며, 사실상 매일 두 번씩 청교도들은 읽혀지는 말씀을 가족이 들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실천적 모범을 보였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청교도인들은 교회가 가정이 살아야 할 종교적 삶을 대신하지 못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사역의 중요성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사역은 초대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정사역에 소홀하게 될 때 중세교회처럼 암흑시대로 돌입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시대나 청교도 시대처럼 이제는 꾸준한 가정사역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Q5. 지금까지 가정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는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 가정사역이 큰 틀에서 무엇을 하는 사역인지, 그리고 가정사역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5. 가정사역을 가정신앙교육, 가정신앙훈련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정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6장을 근거로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신6:8~9) 유태인의 자녀 교육 중에 ‘배운다는 것’은 ‘홍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은 ‘테필린’(경문)을 손과 이마에 직접 차고 다녔습니다. 이 ‘테필린’을 머리와 손에 부착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들려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신6:7) 부모는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유태인의 교육은 아침과 저녁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청교도인들과 네덜란드 개혁

교회는 각 가정이 하루에 세 번 가정 경건생활을 하게끔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가정에서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서슴없이 치리를 하였습니다.

셋째,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신6:6,7)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것은 '찌르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이 자녀들을 유혹하고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왜 자꾸 반복해주어야 할까요? 그것이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함께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훈련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혈연공동체이자 동시에 영적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은 특별과외를 통해서 단기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적과 동영상 등을 통해서 독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사역을 통해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신앙교육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6.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에서는 2019년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가정사역이 특정 한 분야에 대한 사역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사역 하면 많은 분들이 상담 사역이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정사역은 상담 뿐 아니라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등의 영역에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정사역을 해오시면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상담과 같은 다양한 영역 안에서의 가정사역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상담 등 각 영역 안에서 진행해 오신 가정사역의 사례들을 소개해주세요.

A6.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신형섭 교수님도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가정사역은 상담, 예배, 교육, 교

제, 봉사 등의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가정예배를 중요시 여겼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소요리문답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시대에도 가정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미취학 일 때는 오감을 통한 활동을 통해 예배를 드렸구요.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큐티책으로 또는 독서형 가정예배라고 해서 그림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에서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정예배를 전수시켰고,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예배 전도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죠. 코로나 19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사역지에서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학교,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육,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적인 부부와 부모의 사명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저희 가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매일 저녁 9시에 가정모임을 갖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제입니다. 요즘 부모와 자녀들 모두 바쁜 일상 속에 있다보니 서로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또한 서로의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에 가족들과 일상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감격도’라 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행복, 격려와 위로, 도전과 변화 등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안에서 가족간의 갈등도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비폭력대화 공감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욕구는 무엇인지 나누면서 서로의 갈등을 풀

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이로 살다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보내주었는데요. 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함이었습니다. 이전 사역지에서는 약 2년 동안 아이들에게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월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반찬봉사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 외에 눈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밖에 나가서 눈 치우기,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고 같이 수레를 밀어주는 것 등 그냥 ‘착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젊은 부부들에게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날로 정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교회청소도 하고,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의 음식을 전부 사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장애우가 파는 잡지를 다 사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며, 지역봉사센터에 가서 일도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상담입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더불어 그 때에 맞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가정상담 / 중독상담 / 심리치료 / 태아학교 / 사춘기 부모학교 / 결혼예비학교 / 중년부부학교 / 시니어학교 등 때에 맞는 상담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소명을 부여하고,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할 수 있는 상담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 안에서도 상담을 진행하는데, 단지 아이들과 부모안에서만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공중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공명교회입니다. 공명교회인데, 중등 아이들 모임을 공중파로 부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삶

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사역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가정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차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7.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가정사역이 대중화되는 일입니다. 가정사역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가정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정사역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안에 가정사역이 대중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7. 교회는 가정사역에 대한 필요성과 유익에 대하여 성도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후, 각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따라 적절한 가정사역 모델을 개발하고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사역 캠페인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다양한 가정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❶ 교회는 가정사역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 강사들을 초청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사역 세미나와 특강을 개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❷ 교회 안에서 연령에 맞는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는 모임 때마다 조별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만들면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밴드’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 사진을 공유하여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❸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일지를 만들어 배부합니다. 체크가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가정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점검일지를 쓰도록 합니다.

❹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교회 주보와 회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가정사역 란을 만들어

가정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교회는 교재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가정사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신교회에서는 가들리가든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가정예배를 독려하고 관리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Q8.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가장 작은 신앙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신앙적 삶이 한 사람의 인성 뿐 아니라 신앙도 결정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정이 새로워져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연구하고 사역해 오시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정사역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8. 약 4~5년 전부터 교회학교에 부흥을 이야기 할 때, 중요한 테마가 가정이었습니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 신앙의 대가 전수되기 어렵다는 것을 교회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자녀들을 위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예상보다 일찍 다가왔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아직 교회와 가정이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디지털 목회와 더불어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

은 단지 한 교회에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 교단차원에서 그리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처럼 가정사역 단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정사역의 골든타임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향후 2~30년 후에는 다음세대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가정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은 차일피일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세상의 방해와 장애물에 넘어져도 안 됩니다. 부모는 조명탄입니다. 아이들이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추는 조명탄입니다. 이 조명탄을 어두운 땅에 혼자 쏘아 올리면 금세 꺼지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함께 조명탄을 쏘아 올린다면 다음세대 아이들이 그 조명탄을 보고 길 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정기 세미나(2021. 5. 20)

가정에서의 신앙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 장소: 크로스로드 세미나실
- 강사: 김대진 목사(하늘누리교회, 싱크와이즈 교육목회연구소 대표)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담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

“가정에서의 신앙훈련, 종교교육에서 동행으로”

김대진 목사(하늘누리교회 담임, 싱크와이즈 교육목회연구소 대표)

1. 서론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에 대한 강조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활발해졌으나 2020년에 이르러 시작된 COVID-19 팬데믹 이후 더 절실하게 교회와 교회교육 현장에서 외쳐지고 있다. 당장 기능하고 있지 않는 주일학교의 대체제로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도 있고, 가정이 원래 신앙훈련의 심장이었음을 지적하며 원안으로의 회귀 내지는 회복을 말하는 이도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더불어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 해결의 목회적/교육학적 원리와 함께 실천가능한 방법론을 나누고자 한다.

2. 역사적 이해

18세기까지 복음화된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 교회, 마을은 단일화된 동질그룹이었다.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공동의 복지와 생존을 위해 가정, 교회, 마을이 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는 그룹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산업의 구조뿐 아니라 단일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모양을 급속도로 바꾸어 놓았다. 서로 힘을 합치지 아니하면 생존이 힘들었던 농경사회에서 각자 공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형태의 굴뚝산업으로의 이전은 가족의 형태마저 바꾸어 놓았다. 작은 씨족사회로 몰려살던 친족들이 출퇴근이 편리한 공장 주위로 흩어지게 되어 ‘핵가족’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함께 가르치고 돌봐야 할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할 아버지마저 자리를 비우게 된 현실은

자녀의 교육과 신앙훈련을 ‘가정’으로부터 외부 ‘기관’으로 옮겨가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¹⁴ 바로 ‘공교육’과 ‘주일학교’의 시작이다. 두 기관 모두 처음 시작은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 위기에 시작된 주일학교와 공교육 운동은 교육의 주체였던 부모가 사라진 자리를 기관이 대신함으로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선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때부터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서서히 자신들로부터 외부 기관으로 위임하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 등장한다. 다윈이 발표한 ‘종의 기원’(1859)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라기 보다는 유신론적 세계관과 과학주의/합리주의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창조주를 배제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다윈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때마침 주의를 끌었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은 교육철학자 존 듀이에게 영향을 준다. 존 듀이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적 상황 속에서 경험주의/실용주의 교육으로 현대적 교육의 방향을 틀게 만든다. 유용한 기술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의 실용주의 철학은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을 급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공교육은 빠른 속도로 세속화된다. 이제 자녀들의 전인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있던 산업화 시대의 부모들은 교회와 주일학교에 신앙교육을 의탁, 의존하기 시작한다.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역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지위에 이르며 다자녀를 갖게 된다. 이 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마침 붙었던 세속화된 교육과 대중매체의 발전, 청소년 하부 문화의 결속 등으로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적 특징을 갖게 된다. 이때부터 ‘세대차이’라는 학문 용어가 일상의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간극은 커져갔다. 이 때, 교회는 전통과 종교적 가치를 이전의 구조(전세대) 안에서 계속 강조하였기에 청소년들은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복음에서 멀어져 간 다음세대를 보며 거리의 전도자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이때 등장한다. 캠퍼스에서, 농구장에서, 운동장과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 전도하고 일대일 양육

14 W. Ryan Steenburg and Timothy Paul Jones, “Growing Gap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rained in the Fear of God* ed. Randy Stinson, Timothy Paul Jones (Grand Rapids: Kregel, 2011), 146

을 하는 새로운 ‘청소년 사역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YFC(1944), CCC(1951), YWAM(1960) 등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 기관들이다. 청소년 기관 사역 운동은 베이비부머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지만, 여전한 문제가 있었으니 정작 그들이 지역교회로는 도무지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CCC 등의 청소년 기관 사역 모임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예배, 훈련, 교제, 전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지역교회는 여전히 기존의 구조(전세대) 아래에서 오래된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들어 몇몇 지역교회가 청소년 사역 기관의 구조를 차용하기 시작한다. 청소년 사역에 헌신한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교회가 목회자로 고용하여 그들에게 마음껏 청소년 모임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었다. 미국 교회는 그들에게 ‘청소년 담당 목사(Youth Pastor)’라는 이름을 붙였고, 청소년 담당 목사는 동일한 시간 별도의 장소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부모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제 아이들은 세대 차이나는 부모와 엮일 필요 없이 교회 안 별도의 장소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며 ‘쿨’한 그들만의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별도의 교회처럼 따로 모이는 청소년 부서가 탄생한 것이다. 1960년대 등장한 청소년 부서(우리가 중고등부라고 부르는)는 빠른 시간 안에 미국 전역의 교회로 퍼져나갔다. 거의 모든 교회는 청소년 사역 전문가를 찾느라 바빠졌고 그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교육관을 짓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곳에서 그들만의 설교, 그들만의 찬양, 그들만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독보적인 기독교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갔고 그것은 매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얼마 안가 “어린이 부서”가 생겨났다. 어린이 사역 전문가를 세우고 그들끼리 따로 모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어린이들의 입에 맞는 찬양을 만들어 부르며,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활동을 곁들인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유치부가 생기고, 유아부가 생기고, 영아부가 생겼다. 마침 동시대를 살았던 발달사회심리학자 에릭슨(Erickson)의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1950)라고 하는 저서는 그러한 흐름을 촉발시켰다. 발달 단계(Developmental Stages)에 맞게 할 수 있는 활동과 볼러야 할 노래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마당으로 엮여져 있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호텔처럼 바뀌었다.

3. 문제의 본질 - 단절과 방임

발달 상황에 맞게 1~2년 단위로 또래들을 묶어 가르치는 효율 중심의 기독교 교육은 처음에는 매

우 생산적으로 보였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적합한 설명과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 사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기에 그렇다. 먼저 선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어가는 것이 신앙이기에 그렇다. 신앙의 공동체적 특징들은 여기서 모두 언급하기에 너무나 방대하고 깊은 것이나, 신앙이 절대 사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은 성경과 역사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드러난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교육의 문제는 주일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헌신된 교사가 없거나 더 전문화된 사역자와 합당한 커리큘럼이 없어서가 아니다. 더 좋은 교육환경에 투자하고 시설을 구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둘러앉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줄 믿음의 부모세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가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방에서 종교생활을 하다 흩어질 뿐이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과 경험과 추억과 대물림이 없는 교회의 ‘단절’이 문제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소인 가정이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바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 가정은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여유도 없이 신앙훈련의 모든 것을 교회교육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마치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겨놓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모처럼, 자녀의 신앙 양육의 문제를 교회교육 기관에 모두 맡겨놓는 신앙의 ‘방임’과 영적 사교육이 문제다. 이 단절(segregation)과 방임(delegation)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이어주느냐(연결),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일로 회복하느냐(가정 역할의 회복)에 앞으로의 신앙훈련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해결의 원리 - 연결과 동행

‘단절’과 ‘방임’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원리는 분명하다. ‘연결’과 ‘동행’으로만 가능하다. 나뉘어진 세대를 연결하고, 나뉘어진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나뉘어진 믿음과 삶을 연결하는 것이다. 한편 가르치는 것을 넘어 ‘동행’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삶을 나누는 것이다. 교회학교에 학생으로 보내는 학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삼촌과 이모가 되는 것이다. 교회도 그래야

하고, 가정도 그래야 한다. 함께 같은 지붕 밑에서 산다고 가족이 아니다. 대화도 없고 공감도 없고 동행도 없는 가족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 동행해야 하늘가족이다.

그러기에 ‘가정’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연결과 동행의 장소이다. 이렇게 바쁜 시대에, 어떻게 가정에서 연결과 동행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 숭고한 일이 우리의 가정예배를 새롭게 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작게 시작하지만 큰 결과를 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다.

5. 실천가능한 가정예배 – 쉽게 시작하고 오래 지속되는 연결과 동행

사람들은 왜 가정예배를 어려워할까? 먼저 부모(보호자)들은 가정예배가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따라서 예배형식인 예전(liturgy)을 갖추어 가정예배가 드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형식을 갖추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 건물이 아닌 일상에서, 편안한 자세와 복장으로 드리기에 소위 ‘종교성’의 발현이 쉽지 않다.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가정예배 모범’이 있지만, 손에 들고 읽기만 하니 어색하기만 하다. 이 오해를 먼저 걷어내야 한다. ‘가정예배’라기 보다 ‘믿음의 대화’라고 생각하라. 가정마다의 방법으로, 쉽게 시작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할 때 연결은 시작되고 동행이 즐거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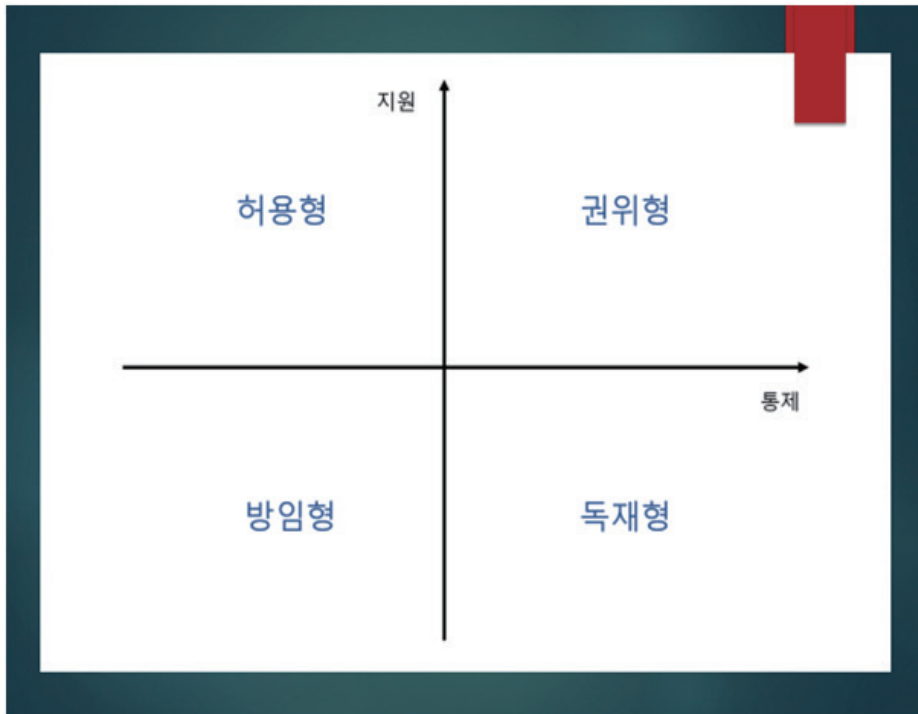
한편, 자녀들 입장에서 가정예배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 시간이 매우 괴로운 잔소리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보호자)들은 가정예배를 핑계 삼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대기 십상이다. 성경말씀을 근거로 부모의 주장을 강화하고, 밥상머리 교육처럼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몰아붙인다. 그러니 자녀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자리로 가정예배를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하향식 종교교육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다. 쉽게 말해 ‘믿음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 여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다. 가정예배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종교교육 시간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시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가정예배가 가능할까?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어도, 믿음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를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 우리 가정이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행했던 실패와 작은 성공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답변이 되리라 생각되어 함께 나누려 한다.

먼저, 가정예배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다. 자녀들이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보호자) 역시 천천히 성숙해 간다. 그에 따라 가정예배의 형식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정신의학자 고든 파커(G. Parker)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른 자녀의 성격 장애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제(엄격, 허용)와 애정(지지, 거부)의 지표를 이용해 네 개의 부모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필자가 정리한 네 가지 부모유형은 아래와 같다.



독재형 부모는 엄격한 통제와 절제된 지원을 보이는 형태여서 철저히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자녀의 행동이 모니터링되고 조정되기를 원한다. 한편, 권위형 부모는 엄격한 통제는 여전하나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자녀가 제한된 범위 아래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한다. 허용형 부모는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을 강조함으로 자녀가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

도록 허용하며 지원한다. 방임형 부모는 통제도 하려 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아 자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는 유형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언뜻 독재형이나 방임형 부모는 잘못 되었고 권위형이나 허용형 부모의 양육 태도가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자녀는 계속 자라나고 그에 따라 부모 역시 새로운 인생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원칙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오히려 유기적인 변화와 리듬을 타는 것이 바른 양육태도라고 본다. 이것은 자녀를 종교교육의 대상으로 보아 가르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함께 지어져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세대통합 신앙훈련의 원리와 상통하며, 그럴 때 부모양육 유형은 아래와 같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다음 표를 보라.



자녀의 영유아기에는 독재형 부모가 필요하다. 사리분별을 할 줄 모르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며 모든 것이 새로워 호기심이 왕성한 영유아기 자녀에게는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안전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 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통제를 천천히 줄이면서 지원을 늘려 자녀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운동장 같은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통제를 줄이고 자율적 선택과 책임의 연습을 하게 하여 책임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모든 통제와 지원을 줄여 자녀가 스스로 따로 서도록 떠나보내야 소속감, 자율성, 자아감을 균형있게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이러한 부모양육 태도의 유형 변화를 가정예배의 내용과 형식에 적용하여 지난 20년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였다. 영유아기 때는 철저히 통제된 환경 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되도록 하였고, 자녀의 소년기 때에는 부모의 역할을 줄이고 스스로 상상하고 사고하는 시간을 늘렸으며, 청소년기에 들어선 후로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자녀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형식과 내용의 시간들을 가졌다. 그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든다.

먼저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활동나눔형’으로 예배하였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동요 노래집’에 있는 노래를 두세 곡씩 불렀다. 동요 부르기 시간이 끝나면 찬송가 한 곡을 정해서 1절만 한 달 동안 매일 부른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사를 외우게 되고, 노래에 맞추어 스스로 율동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달이 다 지날 때 즈음 되면, 아이들은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며 그 뜻에 따라 스스로 만든 율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습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 주었다. 수백년 동안 불려진 믿음의 선배들의 곡조 달린 고백인 찬송가를 어린 자녀들이 함께 부르며 그 뜻을 곱씹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날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셨다. 어떤 때는 함께 마을로 산책을 나갔다. 그 때 아이들에게 마을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말했다. 산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어떤 소리를 들었냐고 묻는다. 어떤 소리가 아름다웠는지, 어떤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물은 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실 아름다운 소리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슬퍼하실 소리가 적어지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어떤 때는 집 안에 있는 성경책을 모두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것을 모두 높게 쌓는 게임을 해보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보기도 하고, 성경책마다 얹힌 사연(입교 때 받은 성경,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성경, 할아버지가 보시던 성경 등)을 말해주며, 말씀의 깊이와 높이가 더욱 커져가는 우리가 되자고 다짐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작은 활동 한 가지를 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행하는 가정예배는 학령전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이 쉽게 시작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정예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자녀들이 성경말씀에 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었다면 ‘함께 읽기형’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생이었을 때 나는 매일 밤마다 ‘이야기 성경책’을 읽어주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치를 끝낸 아이들이 2층 침대의 각자에 자리에 누우면 방안의 불을 끈 후 방문을 살짝 열어 복도의 불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 빛을 이용하여 어린이 성경책을 한 챕터씩 읽어주었다. 캄캄한 방에 누워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보다도 놀랍고 선명한 이미지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어떤 날은 ‘제발 한 챕터만 더 읽어주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등쌀에 못 이겨 세 챕터씩 읽어준 날도 있다. 그 때 샐리 로이드 존스의 ‘스토리 바이블’을 국문으로 한 번, 영문으로 한 번 읽어주었는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들은 나와 두 딸의 영적 양식이 되었다.

자녀가 더욱 자라 청소년이 되었다면, 부모(양육자)와 더불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가족회의형 가정예배’다. 매 주일 저녁이 되면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막내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듣는다.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흥미로운 발견이나, 가슴 시린 상처들을 자기 수준에서 끌어내어 이야기한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선불리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성령께서 각자의 영적 여행을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부모 역시 동일하게 지난 일들과 느낌들을 솔직히 나눈다. 지난 이야기가 끝나면, 다가올 일주일 동안의 일정들을 이야기하며 각자의 다이어리나 수첩에 기록한다. 네 식구는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며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를 이야기한다. 그때 아버지인 나는 목회계획이나 집필 마감일, 심방 일정 등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미팅이나 설교 등에 대한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 등을 나누기도 한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조언하지 않고, 부모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그분의 자녀일 뿐임을 아이들과 나눈다. ‘피차 복종하라’ 하신 에베소서의 현대판 해석이라 믿는다. 그것이 예배가 된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도 그곳은 예배의 자리가 된다.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나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회의’ 시간을 향기로운 예배로 흠향하시리라 확신한다.

6. 결론

지금 시대의 신앙훈련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잘 연결하며 얼마나 진실되게 동행하였느냐에 있다. 가정은 그러한 연결과 동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관계이다. 세대별, 연령별 부서 구조에서 비롯된 심각한 영적 단절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 더 급격히 진행된 교회와 가정과의 단절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삶의 연결과 동행을 통해 부모와 자녀를 잇고, 세대와 세대를 이으며, 가정과 교회를 이어, 여호와 신앙을 대대손손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한다.

2021년 가정사역 대담회(2021. 11. 23)

-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 장소: 크로스로드 세미나실
- 패널: 윤주선 선생(『엄마의 눈높이 연습』 저자, 현 고등학교 교사)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담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 대담회

가정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Q1.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엄마의 눈높이 연습』 책을 통해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여는 눈높이 대화법을 소개하고 있으신데, 부모가 자녀와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1. 우리는 가정에서 대화를 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제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뭔가 딱 막힌 벽이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올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들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비속어를 쓰더라구요. 너무 놀랐죠. 엄마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특히, 코칭을 하고 강의하며 책을 쓰는 엄마에게 이러한 아들의 피드백은 마상(마음의 상처)이었습니다. 소통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제 아들의 마음을 들어보았어요. 말과 행동에 집중하면, 아이의 마음은 들을 수 없거든요. 물론 부모에게 화를 내고 비속어를 쓰는 행동에 감정이 상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할 때 아이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쌓여있었던 감정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답답함, 비교당하는 설움, 불편했던 표현들,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 등등을 이야기

하는데 그동안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웠어요. 아이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놀라기도 했다고요. 엄마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미안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이의 눈썹에 힘이 풀리고, 목소리의 톤이 낮아지더니 좀 차분해지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학생들만 코칭하지 말고, 나를 좀 코칭해줘.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줘. 나를 그냥 인정해줘.”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속앓이를 했을까요?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답함, 화, 억울함, 슬픔 등의 감정과 함께 표출되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화가 나고,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거죠.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막힘이 없이, 오해없이 서로의 뜻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어렵지만, 그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첫 걸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진솔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보여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Q2. 책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만난 아이들의 마음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2.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을 아침에 한 시간, 방과 후에 한 시간 아이들과 1:1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실에서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여학생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친구인데, 코칭 주제가 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기력한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원인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큰 부담감이었던 거죠.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여학생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더 큰 기대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친구에게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도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답니다. 이 믿음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일들이 쌓여서 생긴 것일 겁니다. 더 잘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노력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은 부

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싫어할 법한 행동들을 골라서 합니다. 부모님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한 친구는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학생이었어요. 공부도 거의 하지 않고, 말수도 적은 친구였는데요. 아버지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히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책상 앞에 앉아만 있다고 하면서, 공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코칭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친구가 초등학교 시절 겪었던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시절에 반 친구로부터 건지기 힘든 폭력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왜 바보같이 당했냐?”라며 혼을 내신 거죠. 당시 어린 친구가 원했던 것은 말없이 안아주고, 함께해주는 것, 위로의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 아버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10대 아이들의 마음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부모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에게 기대하는 말,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닌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을 내고 있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큼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두는 건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Q3. 안타깝네요. 부모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는 여학생과 상처받는 마음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남학생처럼 마음의 문을 닫은 자녀와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A3. 아이들은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고 싶어 하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무기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은 어릴 때 시키는 대로 잘하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이들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좌절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올라오나요? 그렇다면 자녀는 그 방향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저주를 하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거든요. 그 씨앗이 삶으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 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충분히 사랑 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부모의 믿음은 강력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가 잘 되길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 안을 누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마음이 눈빛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아이에게 매일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 자라면 5cm, 연못에서 자라면 15~25cm, 강에서 자라면 120cm까지 자랍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몸의 크기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과 마음의 크기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를 제한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아이를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자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눈빛은 어떤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아이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매일 해주세요.

우리 지성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우리 지원이는 바른 길로 내공 있게 성장하며 관계의 축복을 누린다. 저는 저와 남편, 아이들을 향해 매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마음의 에너지를 아이도 느낍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편안해집니다. 경직된 표정과 말투로 아이를 대하고 계신지 아니

면 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마음부터 새롭게 하시길 함께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Q4.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4.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 교육”을 좋아합니다. 작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강력한 습관으로 자리잡거든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고, 3~4일 놀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한번 열심히 실천하고, 며칠을 안 하면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잘 나누기 위해서 ‘잠언 1장’ 말씀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 나누기를 제안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중1, 초4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을 가져와서 둘러앉습니다. 날짜별로 잠언 말씀을 1장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몇 절씩 나눠서 소리 내어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 어떤 마음인지 나누게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제목이 되기도 해요. 잠언 말씀 1장 읽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 반복적인 구절이 나온다는 걸 아이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교육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지요.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거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아들이 개미처럼 일하기 싫고 베짚이처럼 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짚이처럼 놀면 안 된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답니다. 하지만, 마음코칭대화법을 적용해서 이때에는 그 마음을 공감해줘야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지원이가 베짚이처럼 놀고 싶구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랬더니, 공부가 하기 싫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루 일과를 잘 보냈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다가 둘째 아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발견한거죠. 자연스럽게 ‘노동’의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칭찬해주지 마시고, 부모님도 칭찬해달라고 해보세요. “엄마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아빠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라고 말씀해주시

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칭찬을 해준답니다. 부모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마음의 에너지가 올라가거든요. 서로 1일 1칭찬을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1분 스킨십을 꼭 실천해보세요. 저는 남편이 퇴근할 때, 아이들이 학원 다녀올 때, 가능하면 현관으로 가서 꼭 안아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온 몸에 퍼집니다. 잠자기 전, 꼭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도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실천하더라도 하루에 10분이면 가능하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10분씩 실천해보시고,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5. 저는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학생들을 코칭 하는 것이 자녀를 코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저도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도 10번 넘어지고, 한번 성공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인지 알고 싶다면, 나의 자녀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엄마는 학생 코칭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아이의 말 아래에 있는 아이의 마음은 “엄마, 나를 좀 더 응원해줘. 나를 더 사랑해줘. 엄마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싶어.”입니다.

엄마가 학생 코칭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공감적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좀 더 따뜻하게 표현하고,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 마음이 느껴지니? 지금은 어때니?” 다시 물어봤을 때,

“좀 느껴져요. 좀 편안해졌어요.”라는 반가운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지요.

저는 아이들이 화를 내고, 뭔가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 우울증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자녀들이 화를 낼 때, 마음 상해서 화내지 마시고 ‘신호’라고 인지해주세요. 뭔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고기 코이처럼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느냐에 따라, 엄청 크게 자랄 수도 있고, 거의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쉴 수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를 잡고 실천해보시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귀한 만남을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정기 세미나(2022. 5. 12)

그리스도의 영성, 가정에서 어떻게 본받아 살 것인가?

-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오후 2시
- 장소: 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
- 강사: 김현호 신부(동두천 나눔의 집 원장 사제)

작은 기지촌 마을에서 도전받는 화해의 사역

김현호 요아킴 신부(동두천 나눔의 집 원장 사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에베소서 2:14-15)

1. 들어가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땅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가정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 또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이 분열되고 상처를 입으면 그 안의 존재들도 분열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함이란 ‘온전성’(integrity)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다는 의미는 완벽하거나 완전하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는 장점과 아울러 단점도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온전함이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수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용기있게 직면하며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보다 더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의 마을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마을의 달이 없기에 가정의 달을 빌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마을이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개인들에 있어 가정이 가장 작은 기초공동체가 되듯이, 마을은 각각의 가정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은 교회가 마주하는 가장 작은 기초공동체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기초공동체가 심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은 지 꽤 오래 돼 온전한 가정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끔찍한 상태입니다. 귀농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보다 더하다.” 마을공동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오늘 필자는 DMZ 인근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하던 필자가 우연히 마주한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마을을 건강하게 살리는 일이야말로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지혜를 겸손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두 명의 순자를 만나다

동두천의 작은 변두리 마을에서 두 명의 순자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70년대 초에 땅에 묻혀 비석의 기록으로 만난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생존해 계시지만 마을에서 만신할멈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작은 기지촌 마을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제게 주민들이 연고가 없어 보이지만 꼭 봐야하는 무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 찾아간 곳이 ‘순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무덤이었는데, 무덤 위로 풀은 무성했고 무덤 앞에 조그만 돌비석이 있어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돌비석엔 영어로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해석이 잘 안되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영어

를 꽤 잘한다는 분을 모시고서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레이놀드’라는 미군병사가 ‘박순자’라는 한국인 여성을 사랑했고, 그 여성이 먼저 죽게 되자 결코 잊지 않겠다며 미군병사가 돌비석에 자신의 마음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비석의 맨 마지막 문장은 한글로 돼 있었지요. ‘박순자 가지 마요!’ 그렇게 저는 이 마을의 첫 순자를 만났습니다.

그 마을에는 또 다른 순자가 있었습니다. 한겨울 동사무소의 소개로 나이 드신 어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집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겨울철 연탄나눔 봉사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은 분이었지요. ‘저 집 그리고 이 집 또 건너편 집도 연탄을 다 받는데, 나만 받지 못했어!’라고 하며 통장이 자신만 미워한다며 애통해 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순자’라는 이름의 또 다른 순자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친구를 따라 직업소개소에 갔다가 미군클럽에서 일하게 되었고 의정부와 파주일대를 거쳐 이곳 동두천까지 미군을 따라 이주하게 된 여성입니다. 제가 어머니라 부르면 자신은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어 어머니라 불릴 자격이 없다며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는 극구 어머니라 부르지요.

연탄나눔 봉사가 계기가 돼 알게 된 순자 어머니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게 젊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 주셨지요. 성한 사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됐던 분들의 모습은 모두 가위로 오려져 있었지요. 사진 속에 비친 순자 어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예뻐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좋아했을 것이라 말하니 당시 미군들이 자신을 매우 좋아했다고 하시네요. 한 미군병사와 결혼하여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이곳에 남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마을의 귀퉁이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7명의 할아버지들이 들어있다고 하여 마을에서는 만신할멈으로 불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두 명의 순자들을 만나며 잊혀 가는 작은 기지촌의 역사와 그곳에서 한평생 살아 온 여성들의 삶, 수많은 순자들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조그만 기지촌을 만나다

2014년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북부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조그만 기지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 변두리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70년 기지촌의 역사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로 '동두천'이라는 이름의 하천이 흐르고 마을 주위로 깊은 계곡과 숲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턱거리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를 넘을 때 숨이 턱까지 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2003년 이 마을에 성공회의 작은 기도소가 세워집니다. 성공회 교인들이 이 마을에 이주해 오면서 기도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2007년에는 기도소가 나눔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눔의 집은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눔운동을 전개하며 가난한 이웃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는 선교기관입니다. 이 마을에는 이미 교회들이 있었고, 이 마을에 정작 필요한 활동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운동이라는 판단 속에서 교회가 나눔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4년 겨울, 제 발걸음은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마을이 처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때 기지촌으로 호황기를 누렸을 당시에는 지나가던 개들도 달러를 물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동두천을 넘어 경기북부에게 꽤 유명했던 기지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화 세트장과 같이 옛 흔적들만 있을 뿐,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을 상대로 하던 클럽은 인근 지역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으로 변해 있었고, 주말이면 심야의 불빛을 초라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길에는 주민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몸짓이 큰 공사차량들이 마을 한가운데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 위에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한창이었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마을 보상기금을 두고 마을주민들이 분열돼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고 보상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매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버림받은 마을에 살아가는 버림받은 존재들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꽤 큰돈을 보상금으로 받았으나 소수 몇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세택공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사용됐고 결국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보상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지촌을 만났고 그곳의 상처를 보았으며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무

엇인가가 제 영혼을 불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마을을 좀 더 깊이 사랑해야겠다는 연민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4. 건강한 마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다

이 마을에 세워진 나눔의 집은 지속적으로 두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나는 마을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마을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가정을 돌보는 활동은 ‘사랑나무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의 아동센터로 확장되었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결연을 맺고 지원하던 일은 ‘텃거리사람들 협동조합’으로 확장돼 기지촌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유형화하는 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4년 마을에는 나눔의 집을 지켜오던 두 명의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쇠락해가는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집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10여 가정과 결연을 맺고 매주 반찬을 만들어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에서 마을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은 가정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맡겨진 역할에 매우 충실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마을의 현실은 아이들만 잘 돌본다고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것만으로는 망가져 가는 마을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명의 실무자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루 몇 시간 아이들만 잘 돌본다고 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기지촌 마을이 가지는 지역적 소명은 무엇인가?”, “마을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활동가라 말할 수 있는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가?”,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가정과 마을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는 없는가?”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갖고 성실히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마을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모임을 정례화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보기 시

작했습니다. 마을 지도를 그려보고 색이 바랜 벽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도 개최하였지요. 또한 마을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만드는 일을 학부모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과일로 과일청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학교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학교를 열었지요. 마을주민들 사이에 생긴 갈등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관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공동체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교훈에 따라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공부도 하게 되었지요. 마을주민들을 잘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조직하는 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사례를 찾아 여러 마을을 탐방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마을학교를 꾸준히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협동조합이 세워지고 마을신문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학당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뜻을 나눌 수 있고 그 뜻에 힘을 보탬 수 있는 이웃들이 한 해 한 명씩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니 조직의 꼴이 갖춰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방 하계, 동계발표회 수준의 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꼴을 갖춘 마을축제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숨기고 싶었던 마을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마을의 가치로 보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급기야 2019년에는 기지촌 최초의 마을박물관이 세워지고, 2020년에는 기지촌 여성의 애환을 담은 순자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 작은 마을의 화해사역이 곧 한반도 평화사역이 되고

이 마을을 보기 전에 필자는 한반도의 평화사역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평양에도 방문하고 금강산과 개성에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주변국 방문을 망설이지 않았지요.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경계심을 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늘 되돌아서면 공허했습니다. 종이에 담은 몇 장의 선언문 내용과 큰돈을 썼다는 귀한 증빙자료로는 우리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필자가 마을을 만났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마을을 만났습니다.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마을로 간 한국전쟁]을 보면,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인민재판, 보도연맹사건 등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참극이 일어난 곳이 바로 마을이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방관자도, 동조자도 모두 마을 안에 있었지요. 마을은 우리 개개인이 속한 ‘가정’ 다음으로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분열과 갈등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찌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고, 오갈 데 없는 실향민들이 미군기지 주변으로 밀려오고, 서울에 가도 구할 수 없는 쌀을 미군기지 주변에 가면 얻을 수 있다는 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쌀을 찾아 밀려들고, 더 이상 팔 것이 없어 몸까지 팔고, 또 그런 존재들 주변에 기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그러면서도 자신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며 더럽다 여겨지는 이웃들과 경계를 긋는 주민들, 위안부 여성으로 살며 달러를 벌어들여 가정과 이 민족의 경제부흥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누이와 동생의 이야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가족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여전히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잘라 도로를 만들고 혐오시설을 마구잡이로 짓도록 허락하는 기지촌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서 분열이 끝나고 화해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6. 나오며

마을을 보고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온전하고 건강한 마을을 향한 지난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을 좀 더 이해하려 노력했고, 주민들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자 교회의 문턱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로 향했으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망가져 가고 있는 자연환경과 화해하려는 몸짓들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좀 성장한 듯 싶는데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식지 않는 한 건강한 마을을 향한 순례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향후 화해의 여정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갈등상황을 마주했을 때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화해의 여정은 보다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갈등상황을 마주 하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폭력을 행해하기가 일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내보이는 태도가 어떠한가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추상적이고 고립된 영성이 아닌 실천적 영성을 나누는 자리이지요. 필자에게 있어 영성이란 태도입니다. 필자에게 있어 실천적 영성이란 성숙한 영성, 온전한 영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온전한 태도를 말합니다. 폭력적 문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비폭력적 태도를 키우고 견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태도를 어디에서 키우고 가꿀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첫 번째의 장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마을이라는 장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가정과 마을은 기초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회가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작은 교회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태도를 온전하게 가꾸어 가도록 돕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마을 사이에 큰 벽이 존재하더군요. 교회가 마을의 교회가 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작은 기지촌에서 도전받는 화해의 사역’이 마을마다 위치한 교회들에게 화해의 사역에 뛰어드는 하나의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없을 것이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하고, 백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 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 먹는 것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야훼께 복 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사야 65장 17절-25절)

2022년 가정사역 강좌(2022. 6. 21)

-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해명교회
- 강사: 회복적 서클 대화팀

회복적 가정 만들기

- 상처와 갈등을 넘어 하나 되는 가정 -

회복적 가정 만들기

1. 서로 잘 들어주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열린 귀와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말을 경청합니다.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것은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다른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회복적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매일 가족들과 서클하기

서클은 가족들이 원형으로 앉아 토크스틱을 가진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다른 가족은 끼어들지 않고 토크스틱을 가진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 모임하기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로부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대화 모임을 시작합니다. 대화 도중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경우 멈추고 다시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다시 시

작합니다. 대화모임을 마무리할 때 서로 안아주면서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4. 약속 만들기

가정 안에 일방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두고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합의된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약속을 정합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질 때까지, 또는 그 약속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집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약속을 붙여 놓고 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 이해와 배려, 격려와 위로, 지지와 응원이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적 가정 만들기 세미나

2022년 가정사역 강좌(2022. 10. 11)

실천적 영성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가정

- 일시: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헤명교회
- 강사: 이범성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디아코니아)

실천적 영성으로 선교하는 디아코니아 가정(Familia Diakonia) 세우기

이범성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디아코니아)

들어가는 말

가정은 과연 그 신성함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가? 가정에 대해 말하는 기독교 교육학 계통의 많은 글이 성경의 한두 장소에서 찾을 수 있는 구절만 가지고 실제로는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당위성의 토대 위에서 가정을 막연히 신성시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미화된 이상향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글에서 실천적 영성으로 선교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연구로서 첫째, 실천적 영성인 디아코니아를 소개¹⁵하고, 둘째, 오늘날의 선교가 무엇일지 그 정의와 내용을 생각해 보고, 셋째, 디아코니아의 영성을 가지고 선교하는 가정의 모습을 주변에서 찾아서 소개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성(Spiritualitaet)’이라는 말을 ‘종교성(Religiositaet)’ 보다는 영적인 삶의 ‘생동력(Vitalitaet)’으로 이해하는 몰트만의 개념을 사용한다.¹⁶

1.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신학적 정의

1.1. 사회학에서 본 가정

우선 가정에 대해 원칙론적으로 살펴보자. 가정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인간

15 한백병, 하나님 나라 현재로서의 디아코니아, D&V, 2020, 99쪽 이하를 참고하라.

16 명재영, 평신도 중심 교회, D&V, 2021, 253 참조.

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집단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 즉 가정은 하나의 ‘집단’을 뜻하기도 하지만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¹⁷ 가정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혈연 관계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일컫는다. 주로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조합의 가정이 생겼고 이를 반영하여 법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거를 기반으로 하며, 다른 사회집단처럼 개개의 가정도 각각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¹⁸

실로 가정의 형태는 다양하다. 일차산업보다는 이차산업 그리고 삼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진 현 사회에서 세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제로부터 소위 핵가족제도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인 두 세대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녀 보기를 포기한 2인 가구가 주목을 받더니, 이제 2020년부터는 아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형태의 30%를 넘긴 가장 높은 비율의 가정 형태가 되었다.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고 근소한 차이로 30대가 그다음을 차지하는데, 70대 이상을 통틀어 한 세대로 보는 통계들은 이 세대를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로 소개하기도 한다.¹⁹ 1인 가구는 결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혼(“돌싱”), 미혼, 만혼, 비혼(의식적 비혼과 무의식적 비혼) 등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갖는다.

1.2. 구약성서의 가정

창세기 기사에 따르면 가정은 남녀 한 쌍을 기본으로 시작된 최초의 기초사회집단이다.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은 그러나 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로 역 발전하여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가정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의 첫 두 자식은 그들의 신앙적 영역에서 상대방을 시샘함으로 가정을 형제를 때려죽이는 살인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벌린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작은아들에게 분풀이하여 그 자식의 인생을 평생토록 저주받게 했으며, 경제적 난민의 길을 택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탐하는 사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오누이라고 속여 말하라고 주문하는 가정 포기의 상실감

17 wikipedia 가정 - 생활공동체

18 같은 곳.

19 “1인 가구 비율, 사상 첫 40% 돌파”, 동아일보 2022. 8. 23. 주민등록상의 자료를 근거로 삼은 통계.

을 자아낸다. 그러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 역시 경제난민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행동을 반복한다. 비록 허락하는 사회정서였지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유리한 신분에 있던 여자는 그렇지 못한 여자를 가정에서 내쫓았고, 쫓겨난 아내와 아들은 노상의 거지 신세가 된다. 외부에서 온 고귀한 신분의 남자 손님을 성추행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폭도들에게 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는 비정의 가정이 용인되는가 하면, 이후 그의 두 딸은 종족 보존을 이유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동침한다. 한편 친자식들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식을 편애하는 끝에 형제간 원한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피해 가정을 떠나야 하는 가정사도 있다. 가정에 대한 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는 성경책 66권의 첫 책인 창세기의 31장까지를 살펴본 내용에 불과하다.²⁰ 그래서 필자는 많은 사람이 성경의 어느 이야기를 인용하여 가정의 고귀함, 신성함, 절대성을 그렇게 자주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3. 신약성서의 가정

구약성서에서 가정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았거니와 신약성서는 가정의 의미를 더 나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신약성서의 대 저자인 사도바울은 스스로 독신을 자처하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전7:26-40).”²¹ 사도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을 피력했고 그것이 정경으로 채택된 말씀에 수록되어 있다면, 이 발언을 단순히 그의 개인적 의견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 비교, 개역개정 성경 창세기 1~31장

21 성구 인용에서 “/”는 절 구분, “//”는 종락 표시.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가정 자체를 그다지 고귀하거나 절대적이거나 신성하다고 보지 않으신 듯하다.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마10:34-37)”라고 하셨다. 열두 살 시절 예수는 이미 가정의 친밀함과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으신 듯하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 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눅2:41-50).” 부모로서 이 아이의 당돌한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예수께서 직접 가족에 대해 정의를 내리시는 발언을 통해 그의 특별한 가정 개념, 혹은 가족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친족들이 집 밖에서 예수를 불렀다. 이때 “우리가 둘러앉았다가 여쭙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3:32-35)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가족으로 여기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예수의 형제, 자매, 어머니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관을 피력하신 것이다. 반면에 혈연관계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2. '신앙공동체'로부터 '혈연공동체'로 전이되는 기독교 가정관

2.1. 새 가정의 구성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에 부름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토대로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신앙공동체의 가족관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에 의해 그 표를 갖는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족 관계는 거듭난 생명 공동체로서의 가족 의례를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서 확인한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문한 사실로 인해 가족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음으로써 지속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들의 가족 신분은 '천사도 흠모할만한 것으로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 행사와 같은 것이다.

“사랑은 믿음처럼 내게 속한다(Die Liebe gehoert mir wie der Glaube)”고 현대 디아코니아의 창시자 비셔른(Johann Hinrich Wichern)은 말한다. 믿음의 가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가정은 비셔른이 말한 “구원하는 사랑(Rettende Liebe)”인 ‘디아코니아’의 질서로 유지될 뿐이다. ‘인자’의 이름으로 오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디아코노스(섬기는 자)’라고 지칭하셨다. 생활공동체 안에서 서열을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모인 생활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야 할 공동체의 토대를 제시하신 것이다.

2.2. 새 가정의 질서

하나님의 가정 토대는 바로 그가 알려주신 그의 이름 디아코니아에 있다. 하나님은 섬김의 본이 되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임마누엘). 성자는 기꺼이 성부의 소원을 채우셨다. 이 비밀을 푸는 공식은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해 아래 전혀 새로운” 질서다. 이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시는 역할이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세상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관계 위에, 이 사실을 믿고 이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서로 섬겨야 한다. 전혀 몰랐던 질서가 이들 가운데 통용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생활공동체에 생긴 분쟁에 해결사로 관여하신 예수는 이 질서를 분명히 전달하신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

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22:25-27). 이 사회의 질서에 거꾸로 가는 대조사회의 질서가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디아코니아이다. 예수 기숙학교 3년 커리큘럼은 ‘디아코니아’의 이해와 실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천 년 전 학원에도 가정에서 비롯된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다.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마20:20-22). 이때 그 학원에 재학 중인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동료의 처사에 분한 마음을 가졌고, 선생은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씀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5-28).

2.3. 새 가정의 영성, 디아코니아의 전이(轉移), 신앙공동체에서 생활공동체로

디아코니아적 일상에서의 영성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과 관계하는 것이다.²² 파울 출레너는 교회의 곤경을 영성의 손실에서와 이웃의 곤경에 대한 민감성의 손실에서 보았다. 하나님과 인간들 가까이 자리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본성이다.²³ 이 새로운 관계성의 이치는 신앙공동체로부터 혈연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이 새로운 ‘질서’를 체화하도록 부름을

22 Michael Schibilsky, “Spiritualitaet in der Diakonie – Annaerungen aus dem Alltag,” Beate Hofmann/ Michael Schibilsky, Spiritualitaet in der Diakonie, Kohlhammer, 2001, 12.

23 M. Herbst, “Perspektiven fuer eine missionarische Diakonie und eine diakonische Mission – Anstoesse fuer ein SpirituellesDiakonie-Management,” M. Herbst/ U. Laepple, Das missionarische Mandat der Diakonie, 2009, 20.

받았다. 디아코니아가 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이 상호 섬김의 질서가, 통용되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고 가치 평가의 척도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신앙공동체를 채우고 흘러넘쳐서 혈연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물들인다. 혈연공동체가 신앙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선교다. 혈연공동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단지 신앙공동체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다. 혈연공동체의 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공동체의 새 가치를 잘못 이용하지 말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디아코니아를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5:38).

그러나 혈연공동체, 즉 가정은 세상의 사회적 기초단위로서 ‘묵은 포도주를 찾는 속성과 습관’(눅5:39)을 갖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가치가 혈연공동체인 가정의 가치로서 흘러 들어가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혈연공동체의 소원이 믿음공동체를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공동체의 소원이 혈연공동체의 그것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길을 따라나선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새 공동체의 실천을 중단하겠다는 순간에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기 이를 데 없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마8:22)는 것이다.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명령은 새 가치관을 사는 것이다. 이 사회의 세계관이 신앙공동체를 지배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수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치관이 전도된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3. 섬기는 “대조사회(Alternative Gesellschaft)”, 교회와 가정

3.1. 새 가정 구성원의 존재감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질서는 이러하다, 아니 이러해야 한다. 디아코니아가 기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공동체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바울은 가르쳐준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전12:12-21). 신앙공동체의 타자 인식, 혹은 구성원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중요하여 그 존재감이 충만하기 이를 데 없다. 가정에서 가족 개개인의 존재감은 이렇게 충만한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2-27). 가정에 돈을 벌여오는 역할이 있고, 집안 살림을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돈을 쓰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옷을 입고, 그 정리된 공간을 받아쓰기만 하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나아가 부족한 지체는 더 귀한 것을 입고, 더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새 가정’이다.

새 가정의 구성원이 될 자격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상호간에 철저한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은 홀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일이다. 신앙공동체의 가치관과 질서가 혈연공동체로 흘러 들어올 때,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가장 기초적인 ‘안식처’가 된다.

3.2. 새 가정 구성원의 호(好) 불호(不好)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아야 한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세계관을 펴뜨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생활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용인되지 않았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에게 예수의 가치관은 용납

될 수 없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공생애 기간 내내 선생 예수와 가치관 투쟁을 해야 했다. 힘이 있는 자 아래 힘없는 자가 굴복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니 이런 사고는 나약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세상의 발전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때부터 확신하게 된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니 베드로가 항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았지만 사탄의 말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전반부에 소개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의 셈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결국 “세상은 교회 미워하기를 그쳤고, 교회공동체는 그들의 폐쇄적인 하나 됨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세상에 구원의 증거로 내놓기를 그친 것이다.”²⁴

온종일 일한 사람의 눈에 불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세상을 교란하는 악한 행동으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마15:18-19).

한편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특이한 행동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다. 이들의 특별한 행동은 설명(설교)을 통해서 그리고 진실한 행동의 지속성을 통해서, 이해되고 감동되고 공감의 생기기면서 신앙생활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고 싶은 욕구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박해를 받는 것부터 이해가 되어서 공감

24 M. Herbst/ U. Laepple, Das missionarische Mandat der Diakonie, 2009, 21.

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아심은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설교)을 들을 때에 믿게 된다.

3.3. 새 가정 구성원의 상호의존성

디아코니아는 루돌프 베스가 고민의 보따리를 풀어 놓은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기독교를 완전히 대신하지 못한다. 신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디아코니아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돕는 분으로서만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올리히 바호가 예리하게 관찰하였다시피,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신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율법학자가 도움 받는 자를 이웃으로 전제한 것과는 달리, 돕는 자를 이웃으로 보게 만드신 예수는 사람의 관계를 항상 돕기만 하는 자와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자의 도식에서 누구도 돕기만 하거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자는 없고 사람은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인간의 관계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한 하나님이지만 구약에서의 계시와 신약에서의 계시는 분명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무지한 채로 고생을 해야 했다. 그것은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었고 세상이 알지 못하던 생각이어서 “생배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마9:16) 이치에 닿지 않는 힘겨운 배움을 계속해야 했다. 적어도 예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는 날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4. 디아코니아 영성으로 선교하는 가정

4.1. 가정, 디아코니아 실천의 현장

가정을 지탱하는 미덕은 무엇일까? 아마도 희생적인 사랑이 아닐까?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모성 그리고 부성을 희생이라는 말로 요약하는 것을 본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온 것을 보

람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이 희생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기 때문이다. 자식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지 대부분 그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다. 자식이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은 그 사랑에 대해 부모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다.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 헌신한다. 그래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하지 않는가. 심지어 자기 몸을 갓 부화한 새끼에게 먹이로 삼도록 통째로 내어주는 곤충도 있다. 이 사랑이 숭고하게 보이기 보다는 자연의 법칙이나 섭리로 이해되지 않는가.

우리는 가정이 사랑의 원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유교적인 효(孝) 개념을 동원한 신과 극을 지어낼 필요는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할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러한 사랑은 신적인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7-8).

신약의 디아코니아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이 사랑은 시작되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헌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적이지만 쌍방향적인 사랑을 제시한다. 이 “쌍방”은 조건으로서의 그것과 다르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말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도움을 주는 자를 높은 자리에, 도움을 받는 자를 낮은 자리에 배정하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할 수 있기에 그 위치가 동등하다. 올리히 바흐의 관찰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인자(人子) 예수는 어머니에게 철저히 의존적인 갓난아기로서 인간의 도움을 받으셨고, 나사로 가정의 친구가 되셔서 우정의 도움을 받으셨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던 시간에는 제자들의 기도지원을 청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희롱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도움을 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섬김을 연습해야겠다.

4.2. 가정, 다양한 가구 형태의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우리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가정이 갖는 절대적 이미지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화시켜 보았다. 선교하는 가정의 영성은 맨 처음에 ‘신앙공동체’인 교회로부터 ‘혈연공동체’인 가정으로 전이되어야 하며, 이렇게 옮겨진 ‘대조사회’의 질서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인간들 가운데 있는 곳에,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진정 가지고 있는 곳에 거기에 그 소유자가 그것을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 없는 사람들과 그것이 없는 곳에 가져가려고 할 뿐이다 (...).”²⁵

결국 선교적 가정의 실천 영성은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예수 이전의 세계가 미처 알지 못하던 새 차원으로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성격과 쌍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상호 디아코니아적 성격을 갖는다. 단순한 실천의 의미가 아니라 선포의 내용인 디아코니아는 결국 디아코니아로 물든 가정을 선교하는 가정으로 세우게 된다. 우리가 살펴본 한국의 가정 상황은 디아코니아 가정들이 교회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선교적 관계를 맺기에 좋은 형편에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을 통해 교회 내, 지역사회에도 비슷한 비율로 1인 가구가 존재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곧 교회 내 성도를 ‘가족’단위로 이해하기보다 ‘가구’의 관점에서 성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와 지역사회에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역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²⁶

4.3. 가정,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선교의 사례

하나님의 선교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말과 디아코니아의 실천 외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는 디아코니아로 구성되고 이루어지며, 그 방법도 디아코니아적이어야 한다. 디아코니아에 물든 가정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최적임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적선교를 비שר은 “믿음으로부터 소원하게 된 신자들과 개신교회로부터 소원해진 백성을 믿음 안에서 자원해서 구원하는 사랑의 일”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교회가 그들을 떠났다.²⁷

25 Wichern, Saemtliche Werke VII, 323.

26 강덕구, ‘1인 가구 사역’의 이해와 전망, 복음과 실천신학 제 53권(2019), 20.

27 M. Herbst/ U. Laepple, Das missionarische Mandat der Diakonie, 2009, 23.

4.3.1. H장로

H장로는 30년 재직 생활을 뒤로 하고 조기 은퇴한 초등교사이다. 그는 그동안 참여해오던 네팔에 선교제로 나갈 것을 준비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해외 활동이 여의치 않자 당장에 밀려들어 오는 요구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초, 중, 고 과정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대학공부를 위해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병행했다. 그의 전문적인 수교에 대한 대가는 오직 보람 하나였다. 국내이지만 자비량 선교사로 일하는 기쁨이다. 그 가정은 그가 월급을 받던 시절부터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금까지 남은 위한 지출의 몫을 큰 비율로 지정해 두고 이리저리한 섬김을 실천한다. 가족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없다. 그 생활 방식은 당연한 것이고 모두들 그렇게 한다. 이웃들은 그에게서 디아코노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동기를 부여받는다.

4.3.2. M목사

M목사는 열정과 경험의 겸비된 연령대의 여목사다. 현재 ‘국내 외국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주중에는 치과 의원이 된다. 이 치과의 로비는 넓기도 하다. 로비가 왜 이렇게 쾌적하고 화사한지, 주중에만 이곳에 오는 환자들은 잘 모를 것이다. 아마도 이 교회의 재정은 교회유지비와 선교비의 비율을 따지면 10% 대 90% 정도 될 것이다. 선교비가 90%다. 이들은 2017년에 중앙아시아 십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 때 네 식구 모두는 선교사였다. 남편 K집사는 선교지 현지 치과들을 재교육하는 교육치과 원장으로서 현지인을 섬겼고, 본인은 신학교 코디네이터로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 직원들과 신학교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계속했다. 딸과 아들도 이 사역과 생활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함께 했다. 그들은 여전히 섬기는 사역을 귀국 후에도 계속하고 있다. 특별히 선교사라고 불리지 않아도 그들은 선교사로 살고 있다.²⁸

4.3.4. 더사랑부의 가정 네트워크 선교

경기도 하남시 M교회에 더사랑부가 있다. 더사랑부는 사랑이 더 필요한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구

28 문혜정, 섬김 - 마음을 여는 선교, 2021, 198쪽 이하를 참고하라.

성되었고 움직인다. 30명 정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반반 비율로 모인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 장애인복지관 직원, 중국동포, 사회복지사, 영양사, 유치원 교사, 간호보조사, 영어학원 강사, 우체국 직원, 공장 일용직원, 대학교수, 노인 등 다양한 직종과 출신의 사람들이 ‘더 사랑’이라는 구호 아래 모여든 것이 벌써 20년이 다 된 일이다.

2013년에 발표된 WCC 선교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의 선교와 전도 - 선교와 전도에 대한 WCC의 새로운 확언”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핵심 단어가 “주변인” 개념이다.²⁹ WCC의 둘 밖에 없는 선교 성명서들 중에 다른 하나인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컬 확언”(1982)에서도 이 개념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새 성명서와 옛 것의 차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옛 성명서에서 중요했다면, 새 것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⁰ 아마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장려하고 있는 듯 하다.”³¹ “정상”과 “이상”이라는 첫 인상으로 시작된 이 만남은 “친숙함”과 “낯섦”이라는 개념으로 발달해서 인지가 되고, 이 변화는 그동안 친숙해진 ‘이상’을 비정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까지 이른다.³²

지난 주일 이 모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들을 열거해 보자. P권사가 H성도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일과 O권사가 H성도의 남편 K성도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일, L권사가 S집사를 방문하여 S집사 남편인 E집사와 더불어 셋이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커피 마신 일, P집사가 S집사와 E집사부부 집을 방문하고 이들과 산책하며 운동시킨 일, 이 P집사가 간식을 사들고 J집사를 심방하여 바깥 소식을 전해 준 일, 이 J집사를 M집사도 방문하여 간식과 인사를 전한 일, 위 인물과 다른 L집사와 다른 O집사가 서로 안부하며 운동 모임에 발을 맞추어 나가는 일, 이 다른 O집사가 휠체어로 앞장 서서 다른 여러 교우들에게 신 거주지 새로운 길을 안내하던 일, 지난 주중에도 위에 등장한 P권사가 집 근처 H성도댁을 삼계탕 두 마리 요리해서 따뜻하게 먹인 일, 이 H성도댁을 위의 O권사가 찾아가 밥을 해 먹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전기밥솥 쓰는 법을 가르쳐주며 함께 밥을 하고 먹게 한 일,

29 이범성, 에큐메니컬 선교 II, 139.

30 이범성, 에큐메니컬 선교 II, 144.

31 M. Herbst/ U. Laepple, Das missionarische Mandat der Diakonie, 2009, 25.

32 Markus Dederich, Behinderung im Wandel der Zeit - sozial- und begriffsgeschichtliche Anmerkungen, Johannes Eurich/ Andreas Lob-Huedepohl(Hrsg.), Inklusive Kirche, Kohlhammer, 2011, 11.

E권사가 다른 회원들과 더불어 떡을 여러 봉지에 나누어 싸가지고 다른 K집사댁을 비롯한 여러 교우들 집을 방문하여 가져다 드리고 잘 들 계신지 안부하는 일, 함께 참여하시는 노인교우들 안부를 수시로 살피는 P권사, O권사, 그리고 M집사가 활동보조사와 어려운 관계로 힘들어해서 담당 L목사와 찾아가서 의논하고 해결한 O권사와 P집사, E집사가 시설에서 지내던 S를 만나 둘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갈 때에 화목하게 살도록 삶의 지혜를 조언해주던 지금은 권사가 된 집사님들.

이 부부가 신혼 살림하던 7년 전 더사랑부는 학령기에 학습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우들과 국어, 역사, 사회공부등을 통해 여러 해 동안 사회통합의 계기를 만들었고, 그 교육은 지금도 비폭력, 평화의 대화법, ‘죽음에 대하여’ 등을 주제로 계속되고 있고, 연 2회의 수련회를 통하여 백두산 등반, 동경 소수자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여러 모양으로 계속되고 있다. 여기 등장한 인물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가구 유형중에 1인 가구, 2인 가구 또는 그 이상의 다인 가구가 함께 더사랑부라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에서 맺어진 네트워크로서 각자는 홀로 고립된 가정일 수 있으나 주일 예배 후 오후에 세 시간 정도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성경공부하는 만남을 중심으로 부담 없는, 그러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단톡방에서 성경말씀을 아침묵상으로 나누고, 언제든지 자원해서 긴급 투입되는 신앙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관계가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십년 정도가 걸렸다. 물론 그간 돌아가신 분, 이산 가신 분도 있지만 새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로 인해 조금씩 많아지며 조금씩 더 깊어지는 신앙공동체가 되었다. 이들에게 더사랑부는 교회가 만들어준 새로운 가정이다. 자원해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나라의 모델이고, 신앙공동체가 혈연공동체를 대신하기도 하고, 여전히 혈연공동체는 보호받고 육성되며, 이 신앙공동체는 이 가정들, 즉 혈연공동체로부터 협력, 지지, 응원 등의 자양분을 공급 받으며, 이 에너지가 신앙공동체를 통해 다시 혈연공동체로 흘러들어가는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다.

개신교 교회는 먼저 공동체가 있고 그들 중에 평신도가 있고 나서 그들을 위한 목회자가 있다.³³ 종교개혁의 신학에서 목회자의 권위는 사도전승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비롯되

33 이범성, 에큐메니컬 선교신학 I, D&V, 2016, 187.

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사도성이나 제도성보다 우선”³⁴한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지도하는 일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사안에 골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할 수 없고 다만 교회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디아코니아를 책임지고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모든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지도부에 반대해서도) 디아코니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⁵

‘주변인’의 선교는 배제사회에서 통합사회로, 통합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옮겨 가는 사회적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포용사회 역시 중심부의 주관성에 종속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범성은 서로 허그해야 완성되는 포용사회를 신학적 제의로 주창한 바 있다.³⁶ 가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함께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이루어가는 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단면으로 이해할 것이다.

나오는 말

이 글은 종래에 당연하게 전제해 오던 가정에 대한 이상적인 모범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성경에서 제공하는, 감추고 싶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깔려 있는 실제적 어두운 면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지어진 이래 시작된 사회의 첫 모델이자 기초 모델이 된 가정의 역사는 실상 아름답지만은 않다. 파트너 사이에 사랑하던 시기만큼, 미워하는 시기를 살고, 자녀에게는 헌신적인 사랑 같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늘 모범을 가르치셨던 부모는 실상은 모범이 않은 모습을 보면서, 가정 예찬만 논하고 있는 태도는 현실에 대한 인지를 어렵게 만든다.

가정의 모델은 혈연 중심적 사고에서 그 신앙적 모범을 찾을 수 없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디

34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한들출판사, 2006, 20.

35 올리히 바흐, 인간 이상이기를 원하는 꿈을 포기하기 - 디아코니아교회로 가는 길에서(이범성 역), BOOKK, 2022, 91.

36 이범성, 장애인 -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마5:9), 신학연구 73, 2018, 402, 416.

아코니아 모범 안에서야 비로소 신앙적 모범을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가정이 신앙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은 이상적 가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고,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과 같고, 죄인들이 모였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혈연의 기본적 욕구에 충실한 자연적 공동체로서 절대화시킬 것이 아니라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속성이 변화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신앙과 믿음의 내용은 가정이 요구하는 어떤 소원을 빌어주거나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덕성을 함양 정도의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관계성, 세계관인 디아코니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억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에서 삶으로 실현하고 그 내용을 예배 중에 설교와 성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한 세례 위에 기초하고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에서 다시 자신의 가정과 남의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함께 순례의 길에 나선 것이 우리 가정들의 선교적 삶인 것이다. “지난 날을 살펴볼 때, 기독교적 사랑의 행위에 관한 역사는 하나의 기독교 변증이고,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의기소침해진 모든 것을 더 잘 막아낼 수 없다.”³⁷

37 게르하르트 쉐퍼/ 폴커 헤르만, “고대교회부터 현재까지 디아코니 역사의 발전 개요,” 폴커 헤르만/ 마틴 호르스트만, 디아코니아학 (이범성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6, 151.

2022년 정기 세미나(2022. 12. 1)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ZOOM
- 강사: 김홍일 신부(한국살렘영성훈련원 원장)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담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천지침 - 1



실천지침 - 2



실천지침 - 3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한 실천지침

실천지침 1 -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동기도에 적합한 집안에 공간을 정하여 말씀으로 공동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기억할 수 있는 십자가나 꽃, 촛불을 켜고, 인도자가 묵상의 시간과 끝을 알릴 수 있는 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기도방법은 가정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본문은 에큐메니칼 성서정과에 따른 본문이나 혹은 인도자가 선택한 본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시편 97:7-8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32

“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곤 한다. 그분의 말씀은 나의 지성으로 분석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한 채 숙고해야 할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말씀은 지성소 안에 거룩한

것들 중 가장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와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된다.” – 본 회퍼 –

말씀으로 드리는 공동기도

시작 전에 잠시 침묵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신과 가족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 독서자(인도자)가 선택한 본문을 천천히 읽습니다.
2. 구성원들은 들은 본문 가운데 마음에 와 닿은 한 구절이나, 단어를 약간의 간격을 두고 설명 없이 소리 내어 구성원들과 나눕니다.
3. 독서자(인도자)가 본문을 두 번째 천천히 소리 내어 읽습니다.
4. 구성원들은 두 번째 독서 가운데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나 단어를 약간의 간격을 두고 설명 없이 소리 내어 나눕니다. (첫 번째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독서자가 본문을 천천히 세 번째 소리 내어 읽습니다.
6. 구성원들은 마음에 와 닿은 성경 구절이나 단어가 지금 자신의 삶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를 자신에게 건네고 있는지 묵상합니다.(3~5분)
7. 구성원들은 각자 묵상을 마치면서 떠오르는 기도를 한 문장의 기도문으로 완성합니다.
8.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간격을 두고 각자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9.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끝난 후 인도자는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말씀 구절들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히브리서 4:12)
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디모데후서 3:16-17)
3.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

며 자라고 있습니다.(골로새서 1:6)

4.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골로새서 3:16)
5.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누가복음 24:46)
6.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달음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빌립보서 2:16)
7.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에베소서 6:18)
8.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갈라디아서 1:12)
9.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1:5)
10.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갈라디아서 6:6)
11.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로마서 10:7~8)

실천지침 2 – 성찰기도와 나눔

당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성찰기도는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찰기도의 순서와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은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증보하며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찰기도를 마치고 나눔을 할 때에는 아

래 안내된 나눔의 원칙을 지키며 나누시길 권합니다.

성찰기도는 때로는 부드럽고 기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 아픈 순간들을 떠올려야 하는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변화에 관한 것이고,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성찰기도는 참된 기도의 하나입니다. 성찰기도는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존의 징표들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영적 순간에 현존하기도 하시지만, 요리를 하거나, 메모를 적을 때, 답 메일을 보낼 때, 길을 걸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찰기도는 단순한 기도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하는 바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찰기도는 5개의 단순한 순서가 있으며, 어디에서나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세요.
- 2) 감사하며 하루(한 주간)를 되돌아보세요.
- 3)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생각할 때, 어떤 순간이 떠오르나요? 당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순간을 생각할 때, 어떤 순간이 떠오르나요?
- 4) 하루에 일어난 사건 중 특징적인 사건을 선택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 5) 깨닫고, 들은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그룹 나눔 원칙

- 마음으로 경청할 것, 말과 말 사이에 흐르는 마음을 들을 것.
- 한 사람이 나눔을 하고 있는 동안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말 것.
- ‘우리’, 또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나’라는 문장을 사용할 것.
-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것.
-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것.
- 한 사람에게 주어진 나눔 시간을 지킬 것.

- 한 사람의 나눔이 끝나면 1-2분 정도 나눔을 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할 것.
- 소그룹에서 나눔 이야기들은 비밀로 지킬 것.
- 깊은 기도를 경청함으로 나눔에 대해 반응을 할 것.
- 토론이나 논쟁, 혹은 문제해결로 나눔이 흐르는 것을 경계할 것.
- 언제든지 침묵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유롭게 요청할 것.
- 성령께 깊이 귀 기울이는 시간을 신뢰할 것.

실천지침 3 - 가족회의와 공동분별

1. 가족회의를 예배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우리를 대다수는 기도와 성경 그리고/또는 찬송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끝맺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토의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깊은 영을 위해 필요한 현존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현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엔 현존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안내에 따른 짧은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참석자들에게 더 큰 현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회의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갈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몇 분 동안 마음을 열어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말로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agenda, 사랑의 아젠다를 경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참석자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성령의 현존에 대한 개방성을 잃었다고 느낄 때, 또는 지금까지 나눔 내용들 중에서 성령이 말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 침묵이 필요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 잠시 침묵을 위해 종을 울릴 수 있는 권한을 참석자 중 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3)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정해진 시간(7-10분) 간격에 맞추어 종을 울리고, 그 순간 모두 잠시 침묵하며 회의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존 지킴이”(presence keeper)를 둘 수 있습니다.

4) 참석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한 방법으로, 돌이나 십자가 또는 다른 적당한 물건을 회의하는 동안 몇 분 동안 차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의에 계속 참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시간 동안 대화에서 빠지는 대신에 5분 발언을 하고 회의 동안 참석자를 위한 침묵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대화에서 빠지는 체험은 놀라운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의에 참석함에 더 수용적이고 신뢰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5) 회의 때 참석자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그리스도의 현존 표시로, 빈 의자나 책상을 마련하여 그 위에 예수님 성화나 성경을 펼쳐 놓고 그 앞에 촛불을 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참석자들은 그들이 거룩한 현존 안에서 이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회의 참석자들이 그 회의가 그들의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발전되기를 원한다고 판단되면, 회의의 말미에 짧은 검토 시간을 갖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의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의 깊은 음성을 경청하고 있었음을 느꼈습니까?
- 성령께서 전에 있던 곳 너머로 우리를 새롭게 이끄심을 느낀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지 못하고 자아의 두려움과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때가 있었습니까?
- 회의 말미에 이런 검토 시간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참석자들은 회의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더 큰 관심을 갖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2. 가정 안에서의 분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근본적 열망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그 배경은 기도이며, 기도와 더불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도와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의 자리에서 일이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문화의 정체와 문화적 영향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것이 복음적 가치인지 아니면 문화적 영향인지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별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들, 신학적인 장애 등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이 외에도 여러 방해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개방성 부족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내적 체험에 대한 인식능력 부족입니다.

공동 분별의 방법과 단계

- 1) 먼저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는 어떤 이슈나 문제를 구성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각자의 분별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2) 첫째 단계 / 각자가 기도 속에서 이를 반대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찾도록 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각 사람이 설명 없이 적어 놓은 대로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발표합니다.
- 3) 둘째 단계 / 각자가 기도 속에서 이에 찬성하는 이유를 찾도록 합니다. 그 후에 차례대로 각자가 설명 없이 적어 놓은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 이유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 4) 셋째 단계 / 모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뜻에 따르겠다는 용의를 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밀어 주시는지 개인기도 속에서 느끼고 파악하도록 노력합니다. 그 후에 각자가 그 잠정적 결정을 회의에 알립니다.
- 5) 이런 다음 모두 기도 속에 들은 의견들에 대하여 토론하지 않고 함께 평가한 후에 공동 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3년 정기 세미나(2023. 5. 16)

신약성서에 나타난 코이노니아(Koinonia)

- 일시: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2시
- 장소: 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
- 강사: 김판임 교수(한신대학교 대우교수)

신약성서에 나타난 코이노니아

김판임 교수(한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할까 묻는다면, 가장 적절한 대답이 코이노니아일 것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koinōnia*)”는 (영어로는 fellowship), 한국어로는 교제, 사귄, 참여, 동참 등 다양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1세기 초기 교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II. 본말

1. 코이노니아는 교회 생활의 근본입니다(행 2:38-47)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38-42)

이 본문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42절은 초

기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번역어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헬라어를 보면 힘쓴다는 동사 하나에 사도의 가르침(디다케 톤 아포스톨론), 교제(코이노니아), 빵을 나누기(클라세이 투 아르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프로슈카이스)라는 네 가지 명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초기 교회는 네 가지 면에서 힘썼는데,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코이노니아가 교회가 애쓰던 네 가지 기둥의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애찬을 나누고 기도회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모두 초기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 1) 교인이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란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180도 인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과 다르게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 2) 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로써 예수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 3) 교인은 성령까지 받아 새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따르던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 “주 예수”를 부르며(고전 12:3),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롬 8:14-15).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성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기 교회의 모습은 가족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만나고 식사를 나눕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모름지기 함께 식사하며 생존을 살피며 돌보아주는 것이 주요 임무죠.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교제로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며 친교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가족처럼 서로 돌보며 함께 식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교인들의 삶은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전해줍니다. 떡을 떼는 일은 육의 양식, 기도는 영의 양식을 나누는 일이며, 교회는 교인들을 영·육간에 강건토록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의 가정의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제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사도가 교인들을 가르친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회 구성원들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코이노니아에 애쓰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간에 서로 알아가는 코이노니아에 애쓰면 좋겠습니다.

2.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요일 1:3-6/고전 1:9)
사도행전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코이노니아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 1:3)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6~7)

요한일서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사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공간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에서 코이노니아는 요한일서를 보내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 사이의 사귄, 곧 “우리의 사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한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교제만이 아니라, 공간은 달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소를 초월해서 교인 간에 나누는 사귄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세속적인 교제나 사귄과는 전적으로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는 신성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교인이라면 모름지기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 차원에도 유념하여야겠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바울서신을 보겠습니다. 바울서신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만큼 번역어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코이노니아는 바울서신 중에서도 고린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새번역: 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9)

이것은 편지 서두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임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람들 간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점은 요한일서가 강조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3.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고전 10:16-18 / 빌 3:10)

코이노니아가 “참여함(혹은 참여함. 새번역: 동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고전 10:16-18)

이 본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권면을 하는 중에, 성만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성만찬에서 나누는 포도주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코이노니아)이고, 나누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코이노니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

빌립보서 3장 5-9절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과거에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다.

4. 교인이 나누는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고후 13:13)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는 13장 13절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교통하심(개역개정판; 새번역에는 사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현재 세계 교회나 한국교회에서 흔히 축도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ἡ κοινωνία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바울에게서 특징

적인 것은 코이노니아를 성령의 역사로 본다는 점입니다.

5. 코이노니아는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후 8:3-4/고후 9:13/롬 15:26)

코이노니아가 참여함으로 번역된 구절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경제적인 도움과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은 선교활동 기간에 예루살렘 원교회의 곤궁한 상황을 알게 된 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모금운동을 했는데, 그 모금을 중용하는 차원에서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마케도니아교회들이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고후 8:3~4)

이 구절에서 은혜와 참여함(동참), 즉 카리스와 코이노니아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기에 은혜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직무(코이노니아)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고후 9:13).

이 본문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에도 번역어로는 전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직무”로,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연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문맥은 고후 8장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중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교회를 돕는 헌금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코이노니아(교제)는 같은 지역, 하나의 지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보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간다는 바울의 계획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코이노니아가 쓰였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게 번역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제금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귄)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도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6. 코이노니아는 합일을 이루는 방식입니다(갈 2:9)

이외에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안건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소위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측인 바나바, 바울, 디도 대 예루살렘 유대인 측 사도들(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합일을 이룬 회의 결과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갈 2:9).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친교(새번역도 친교)”로 번역되었습니다.

III. 나오는 말

신약성서에 나오는 코이노니아의 용법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 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기도),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고난에 동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성령이 작용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에는 악과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포함합니다. 지교회 안에 소속된 교인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곤궁에 빠져 있다면 아낌없이 돕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1세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이방인 교회에 호소

했던 것은 코이노니아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안건이 있을 때 순조롭게 합일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인 믿음의 가정, 큰 가정인 교회 모두 코이노니아가 활성화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보살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초기 교회가 성가족이란 이해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마음만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친절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눌 때,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를 “소통”이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시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은 소통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간의 소통, 교회에서 당회원과 일반 신도와의 소통, 사회에서 세대간의 소통, 남·녀간의 소통, 정치가와 일반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영상 QR 코드 모음

2021년 가정사역 대담회(2021. 7. 2)

가정에서 부모의 올바른 언어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1년 7월 2일(금)
- 장소: 크로스로드 세미나실
- 패널: 윤주선 선생(『엄마의 눈높이 연습』 저자, 현 고등학교 교사)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담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정기 세미나(2021. 10. 27)

가정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강사: 이형우 소장(회복적정의 연구소장)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담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동섭 목사 作 '아름의 십자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벨엘!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7호
Tel 02-763-8728



www.ncchome.or.kr

유튜브 채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새가정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 새가정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7호
Tel 02-763-8728



www.ncchome.or.kr

유튜브 채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새가정